



코스피 2486.35 (+6.70)	코스닥 822.31 (+9.86)
금리 (연평균) 2.13 (+0.01)	환율 (원/달러) 1064.50 (+3.30) (3일)



[신년기획]
AI가 뺏은 일자리 너머
4차혁명시대
'희망직종' 뜬다
03

특수목적대 사라지는데... 5000억 들여 한전공대 설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공과대학 설립 논란**

세무대학·철도대학 등
기능 상실로 통합·폐합
기존 공대생 반발 우려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전공과대학(가칭)'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무대, 철도대 등 특수목적대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폐교와 통합의 절차를 밟은 만큼, 또 다른 특수목적대 설립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전이 전문 공과대학을 설립할 경우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기존 이공대 학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

대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 용역이 이달 초 발주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40여 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2월 말경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시행할 계획이다.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2월말부터 9월까지 2단계에 걸쳐 용역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대학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2단계에서는 대학 설립과 캠퍼스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한전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과 함께 건축이념, 비전설정, 캠퍼스 콘셉트 등 대학 설립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1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전공대 빅 픽처를 꿈꾼다'란 제목의 포럼

을 열고 한전공대를 에너지 특화 대학 육성, 독립형 캠퍼스 조성,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 설립, 학부와 대학원 동시 개교 등 설립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포럼에서는 한전공대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전공대 안에 글로벌에너지연구소 등 연구센터 설립, 산·학·연클러스터 조성과 한전 R&D(연구·개발) 등 인프라와 결합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의 코어센터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한전 공대 설립은 현재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총괄·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광주 시내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현수막에 한전공대 설립 공약이 적혀 있다. /뉴스1

한전 관계자는 당시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 에너지 분야를 특화하고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 개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과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한전 공대 설립 비용을 500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특수목적대가 시대의 변화의 따라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설립은 시대

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81년 세무공무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세무대학은 교과과정도 일반 전문대학의 세무학과와 비슷한데도 국가예산으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졸업생들을 세무공무원으로 자동 임용시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01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뒤 폐교됐다.

한국철도대학의 경우도 기능이 약화되면서 2011년 9월 26일 충주

대학교와의 통합이 승인돼 2012년 3월 1일부터 한국교통대학교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경찰대 출신과 일반대 출신과의 차별 문제를 놓고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존 공대의 반발도 우려된다. 한전공대 출신들이 한전을 비롯해 산·학·연 클러스터나 연구센터 등에 대거 포진할 경우 기존 공대생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은 전남·광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정부 공약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기능 약화 우려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학의 기능도 에너지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반종합대학 내 공과대학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LNG(액화천연가스) 쇄빙선을 시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옥포 대우조선 방문

“일감 확보에 모든 지원... 조선강국 도약 확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1분기 중 혁신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를 대비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1·4분기 중에 마련하겠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북극항로에 취항하는 쇄빙 LNG(액화천연가스)선박 건조현장을 둘러본 뒤 “친환경, 자율운항 기술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기자재 실증, 자율운항 핵심 기술과 선박개발을 지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거제는 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새해 첫 외부 행사지로 조선업 현장을 택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

진 중인 한국 조선업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건조를 마치고 4일 출항을 앞둔 쇄빙 LNG선을 직접 둘러본 것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얼음을 깨고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자는 의지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LNG연료선을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쇄빙연구선, 밀수감시선 등 공공선박의 발주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9억불 규모의 선박발주 프로그램, 노후선박 교체 지원 보조금을 통해 민간 선사의 LNG연료선 발주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탈석탄·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조성될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도 해양플랜트 수요 창출로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은 2~3년 후부터는 조선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환경, 연비 등 해운규제의 강화로 우리가 강점이 있는 LNG 연료선과 LNG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때 세계 1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 자신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조선산업은 수출 감소로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 산업의 저력을 믿는다”면서 “우리 기술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 LNG운반선이 이를 입증하고, 힘든 시기만 잘 이

겨낸다면 다시 조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둘러본 ‘Yamal 5호’는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이다. 최대 2.1m의 얼음을 깨고,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장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이 배는 4일 출항해 오는 2월16일부터 약 1개월간 쇄빙 시험을 거쳐 상업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당시 15척의 Yamal LNG 수송용 쇄빙 LNG운반선을 수주한 바 있다. 수주액만 총 48억 달러 어치다. 지난해 3월 당시 1호선을 인도한 후 현재 15척 가운데 4척이 인도됐다. /김승호 기자 bada@

효성, 지주사 전환

섬유·중공업 등 4개사 분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효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효성은 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나뉘게 된다.

지주회사 ㈜효성은 자회사 지분관리와 투자를 담당하며 사업 부문과 건설 부문, 효성첨단소재(섬유)는 산업자재 부문, 효성화학(화학)은 화학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외 계열사는 신설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주식은 해당 신설회사로 승계하고 나머지는 ㈜효성에 존속된다.

효성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T&C,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등 주력4사를 합병한 이후 섬유, 산업자재, 중공업 부문 등 각 사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주사 전환이 추진된 것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이 올 초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해 3세 경영체제가 구축되면서다. 지난해 7월 조석래 회장이 ㈜효성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조현준 회장이 대표이사직까지 맡으며 가시화됐다. 또한 지난해 초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그룹

부터 오너 일가가 효성 지분을 꾸준히 매입한 것도 이를 위한 조치였다.

효성의 지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 357만 5758주, 조현준 회장 501만 939주, 조현상 사장 428만 702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유 지분은 효성 총 지분의 36.665%에 달한다. 자사주 184만 8851주가 인적분할로 연결권이 부활되면 오너 일가가 행사할 수 있는 지주사 지분율은 40%를 넘게 된다.

㈜효성은 이번 분할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된 분할회사들도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며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도 가능해져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사업부문별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돼 경영효율도 높아질 것이라 계산이다.

㈜효성은 오는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회사 분할은 6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

농식품부, 2차 종자산업 5개년 계획 5년 내 수출 2억달러 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향후 5년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라는 비전 아래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3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식품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설립,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등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골든시드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수출기반을 마련했고, 로열티대응연구사업도 추진해 로열티 지불액을 지난 5년간 162억원에서 118억원으로 27.2% 감소시키는 성과를 창출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종자수출 목표 2억 달러 달성해 세계 13위권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2차 종합계획은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구축 및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체 역량 강화의 4개 전략을 제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부안 양잠·울릉 발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 및 제9호로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 '울릉 화산섬 발 농업'을 각각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은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를 사육하기까지 일괄 시스템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지역으로, 경지면적의 41.4%(24ha), 농가 수의 80%(40가구)가 양잠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울릉 화산섬 발 농업은 화산이 분출한 후 화구가 함몰된 칼데라 지형과 급경사지를 밭으로 일구 울릉도 자생 식물을 재배하는 발 농업기술이다.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산자원의 조사 및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3년간 15억 원, 총사업비 기준)을 지원받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줄 News

산업

▲ 지난해 최악의 '수주절벽'을 겪은 국내 조선업들이 '일감 확보'에 총력을 펼친다.

▲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V30에 컬러마케팅 전략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올해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 작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2018'에서 인텔의 차세대 데이터 전송 규격인 '컨더볼트3'를 지원하는 QLED 커브드 모니터 'CJ791'을 공개한다.

금융·마켓·부동산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1등 금융그룹' 재탈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공약은 자산운용사의 독립성 강화다.

▲ 이르면 오는 2월부터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이로 인해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원이 창출될 전망이다.

라이프

▲ 인사동 쌈지길에 지하로 이어지는 쌈지쌈길을 오픈하며 더욱 활기를 띄게 됐다.

▲ 정운찬 KBO 총재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연간 로드맵을 공개했다.

새해 첫 일정으로 현장 찾은 중기중앙회 회장단

“좋은 일자리 만들어 구직자 中소로…”

박성택 등 중기중앙회장단 안산 대모엔지니어링 방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왼쪽 두번째)와 경기 안산에 있는 대모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무술년 새해 화두를 '좋은 일자리'로 잡았다.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떠났던 구직자들의 발걸음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자는 뜻에서다.

이를 위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3일 경기 안산에 있는 대모엔지니어링에서 올해 첫 외부일정을 시작했다.

이노비즈협회도 지난 한 해 본회와 전국 9개 지회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36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단일기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청년 고용에 '올인'하고 있다.

박 회장을 비롯해 이흥우·심승일 부회장 등이 이날 찾은 대모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74억원 매출 가운데 70% 가량을 유럽, 인도,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거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포크레인 등의 팔 역할을 하는 고철절단기, 브레이크, 멀티프로세서, 크라샤 등이 대표 제품군이다.

이 회사는 이미 2011년에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이듬해엔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 대모엔지니어링의 진짜 자랑거리는 수출이 아니다.

4곳의 해외법인을 포함해 총 인원이 125명으로 중소기업인 이 회사는 경영 실적에 따라 연말에 받는 성과급을 포함하면 대졸 초임이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이익분배금만 연간 평균 450%에 달한다. '돈'이 직장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직자가 외면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초임 4000만원' 짜리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인식도'가 46.8점으로 종합인식도 51.4점을 크게 밑돌았다. 한마디로 돈을 적게 주고, 복지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중소기업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는 "2006년엔가 예상보다 회사가 큰 성과를 냈었다. 그래서 성과를 나눴더니 임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더라(웃음)"며 "이후부터 형편 당해대로 임직원들과 성과를 나눠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모엔지니어링은 서울 신도림역에서 본사가 있는 안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각종 포상제도도 두루 갖추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는 회사에서 모두 책임진다. 승진시 토익 등 어학 성적은 필수이면 학원 비용은 회사에서 대준다.

박성택 회장은 "대모엔지니어링과 같은 회사가 2만개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일자리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애로에서 벗어나 생산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모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1명을 새로 채용하면서 이 가운데 19명을 청년으로 채용했다.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들은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재를 키워 회사와 동반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협회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회원사 6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기본급은 평균 2864만원으로 일반 중소기업(2232만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229억 달러 '사상 최대'

전년 대비 7.7% 늘어나
3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목표인 2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29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20.9% 증가한 12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DI는 1~3분기 전년 대비 9.7%

93억6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외국인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협력 수요 증대,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확산, 부동산과 도소매 등 일부 서비스업 투자 증가, 정부 설명회 등 투자유치 노력이 최대 실적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70억6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64.9% 증가한 6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47억 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29.0%

감소한 9억5000만 달러다.

일본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한 18억4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2.0% 증가한 12억 3000만 달러다.

중국의 신고 기준으로 60.5% 감소한 8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8.7% 감소한 2억 달러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증가와 신소재,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41.2% 증가한 72억5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최신용기자 grandtrust@

“통화량-거시변수 연관성 약화… 보완지표 도입해야”

韓銀 'BOK 이슈노트'

저금리·고령화로 통화량이 늘어 도 경제성장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경제팀 박경훈 과장, 심연정 조사역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해외부문 역할이 커지면서 통화량과 거시변수 간 연관성이 약화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가계나 기업의 은행 대출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통화량이 늘어 경제 소비 및 생산 확

대, 성장 등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이 같은 '순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광의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등 집계변수로 살펴봤을 때 통화량과 거시변수 간 연관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다만 통화량 분석에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외하고 부문별로 통화량을 분석하면 거시지표와 유의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여전히 통화량은 정보 변수로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경훈 한은 과장은 "최근 통화량과 거시변수와 연관성이 약해진

것은 한국경제의 저금리·고령화 현상 탓"이라며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늘어난 점도 통화량과 거시변수의 연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과장은 저금리·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통화정책에 '보완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화량의 경기 및 물가예측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보고서는 저금리·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여 내국인 해외 저축을 제외하고 해외부문 영향을 제

고한 지표, 이자율 등 거래적 기능에 가치를 부여한 지표, 가계 소비 및 기업 생산 변화 등을 바탕으로 통화량과 거시변수 사이 관계를 분석한 결과 M2, Lf 등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 통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 분석 등이 물가,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체 통화량(M2)을 봤을 때보다 가계 통화량(가계 M2)과 기업 통화량(기업 M2)으로 한정해보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민간소비나 총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봉준 기자·김현정 인턴기자 bj35sea@

우주여행 가이드... 감정노동상담사... VR전문가... 동물매개치료사

시가 뺏은 일자리 너머 4차혁명시대 '희망직종' 뜬다

기업&일자리가 **희망**이다

㉓ 제3의 직업이 뜬다

제조·서비스 200만 일자리 위기
의사 대신 인공지능이 치료법 제시
의료·복지, IT·AI 유망직업 대두
학생 적성 등 고려 맞춤 지원 필요

“인공지능(AI)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2030년까지 일본에서만 735만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슈퍼마켓 계산원, 제조업 공장 직원 등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기술 진보에 따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직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에서 80만명, 서비스업에서 1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음식점에서는 사람 대신 기계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병원도 들어섰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 기존 직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생겨날 직업도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복지와 IT·AI 등에 관련된 전문직이 유망 직업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서비스업종에서는 사람의 감정처럼 기계가 맡기 어려운 비정형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원격진료코디네이터, 공공조달지도사, 우주여행 가이드, 개인 콘텐츠 큐레이터, 인체 디자이너, 범죄예방환경전문가, 동물매개치료사, 감정노동상담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개최한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약 10년 뒤 떠오를 유망 직업으로 공공조달지도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등을 꼽았다. 공공조달지도사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달·구매와 관련한 계획부터 조사, 연구,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에게 의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이들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환

〈2025 교육부 유망직업전망 순위〉		〈영국정부 조사 2030 유망직업〉	
순위	직종	직종	직종
1	판검사	날씨 변경 경찰	
2	치과의사	가상 법률가	
3	의사	교실에서의 아바타 관리	
4	생명과학연구원	대안 자동차 개발자	
5	변리사	집중보도사	
6	변호사	쓰레기 데이터 관리자	
7	IT컨설턴트	가상 혼란 조정자	
8	컴퓨터보안전문가	시간 브로커	
9	인사/노무전문가	시간은행 중개자	
10	도시계획가	브랜드 관리자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연구소(The Future Laboratory)

자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반영해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기술을 선보인 IT업계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태동되고 있다.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단순 작업 인력은 감소하는 대신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의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 유망 직업으로 AI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VR 전문가, 착용로봇 개발자 등을 꼽았다.

AI 전문가는 뇌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의사결정 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맡는다. 이미 구글·애플·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 사이에서는 AI 전문가 확보를 위한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빅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무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해야 하기에 통계학적 지식과 인문사회학적 사고를 겸비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유망 직종 인재를 육성해야 할 교육 분야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10~20년 뒤 구직에 나설 미래 인재들은 현재 초·중학생들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준비해야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예산지원이 들쭉날쭉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재 육성 및 지역별 산업구조와 인프라에 따른 ‘지역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황순옥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교육팀장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등 교육 선진국에선 지역별 행정기관 장이 교육장을 임명하고, 예산도 지원해 교육자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각 시도와 각 교육청이 제각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산하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을 임명하지만, 시도

별의 장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교육장을 임명해 지역의 산업분포와 인프라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의 쏠림 현상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교육에 코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로봇과 AI 등 IT 업계 직종이 유망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황 팀장은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에 흥미를 갖고 있지만, 어른들은 자녀가 특별히 고생하지 않는 직업을 원할 뿐”이라며 “아이들이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스스로 원하는 직업을 찾았을 때 행복감이 높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박인용·오세성 기자 hys@metroseoul.co.kr

서민 자영업 '음식점·주점' 타격

부정청탁 금지법,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식점과 주점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1~11월 감소 폭(-2.4%)보다도 0.7%포인트(p) 더 크다.

12월 한 달이 더 남았지만 이미 1~11월 감소 폭이 큰 탓에 지난해 음식·주점업 생산은 2015년(-1.8%), 2016년(-0.8%)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음식·주점업 경기 약화의 중심에는 경기 회복세에도 기를 펴지 못했던 소비

가 있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1~11월 증가 폭(4.5%)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소매판매 부진 이면에는 경기 회복세에도 여전히 차가운 체감 경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청년실업률도 고공행진을 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혼밥 소비 풍조가 음식·주점업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직장 회사 문화가 점차 간소화하고 편의점 간편식이나 가정식 문화가 더 세련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음식·주점업을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CLFA

“벌어도 벌어도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은행 대출이 힘드신가요?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시나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생계형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꿈을 대부금융에서 찾아드립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TEL 02) 3487-5800 www.clfa.or.kr

“생기 잃은 대구, 경쟁력·자긍심 되찾게 하고싶다”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① 김재수 · 대구시장 출마 선언 전 농림식품부 장관

현재 위기 상황 타개할 능력자 필요 공항 이전문제 종합적 절차 거쳐야

정기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각각 ‘필승’하겠다는 의지를 새해부터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주 1회 진행해 유권자인 독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구의 경쟁력과 자긍심을 다시 찾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장관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기를 잃고 희망을 살리지 못하는 대구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며 이 같은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대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저의 경험과 열정, 아이디어와 기획력, 중앙행정기관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대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중앙행정기관과 한국농식품유통공사 경험을 살려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그는 대구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구 시장이 되면 정부·대구시·경북도가 조기에 결론을 내도록 행정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재수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출마 이유가 궁금하다.

▲오랜 경제침체와 정치적 상황 등으로 생기를 잃고 희망을 살리지 못하는 대구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 가장 많은 국가 지도자를 배출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우리 대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쉬움도 컸다.

그래서 40년 공직생활에서 갖고 닦은 행정경험과 경영능력으로 ‘기업 마인드와 사업적 수완’을 발휘해 ‘대구를 살릴 능력자’가 되고자 한다.

제가 가진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먹고사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시민 사기도 높여서 대구의 경쟁력과 자긍심을 다시 찾게 하고 싶다.

제가 구상하는 250만 인구의 대구를 주변 도시들과 상생협력하는 400만 규모로 확대시키면 동북아 중심에서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명품 관광 도시, 세계로 열린 도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우리 대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고, 그것은 후손에 대한 죄악이다.

저의 경험과 열정, 아이디어와 기획력, 중앙행정기관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대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추된 시민들의 자존심과 기를 살리는 일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 권영진 현 대구시장,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제가 출마 선언 후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바닥 지지율은 낮지만 입소문이 좋게 나고 있어 기대가 크다.

대구에는 지금 시장 자리에 앉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낼 능력자가 필요하다. 저는 장관 자리에 오를 정도로 행정에 정통하고 경제학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기업 CEO를 맡아 실물 경제 역량을 발휘한 경제의 능력자라고 자부한다.

제가 가는 곳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화두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칭찬을 들었고, 관료사회에서는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아이디어 맨’, ‘추진력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평을 자주 들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재직 경험으로 지방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며, 한국농식품유통공사 CEO를 역임하면서 실물경제를 가장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

제가 늦게 출발한 감은 있지만 종합 행정의 최고 자리인 장관까지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서 기업 마인드와 사업적 수완을 가진 경제 전문가였다는 능력자로 부각되면 시민들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대구의 가장 큰 지역 현안은 통합 대구 공항 이전 문제인데.

▲대구 시민 대다수가 군사공항은 반드시 이전하되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공항 이전 토론회에 참석해 보니 이전에 대한 장점만 너무 부각시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재정여건,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 절차를 거쳐 존치 또는 이전의 결정이 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대구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가 주변 시를 포함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 할 때 의미가 있다. 종합적인 국가 안보의 틀 속에서 우리나라 군 공항의 전반적인 운영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 관계부처 협의, 예산확보 등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목적이나 ‘한 건 주’의 250만 대구 시민과 300만 경북 도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취수원 문제는 대표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몇 년째 끌여오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왔다면 이미 해결됐어야 한다.

시민들,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충

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그런 조정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제가 대구 시장이 되면 정부·대구시·경북도가 조기에 결론을 내도록 행정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경선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에게 유리한 ‘물’을 만드려는 사람은 시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그 기준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어떠한 물도 따르겠다.

아마 대구 시장 선거는 내년에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 국민의 기대 수준에 알맞는 새로운 인물이 공천되리라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제가 기본적으로 정무직으로 발탁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공기업 사장을 하고 있는 도중 연임이 됐고, 이후 장관을 하게 됐다.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인정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누구 편에 선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CEO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중 이뤄낸 대표적 성과는 무엇

인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재임 시절에는 신유통경로를 확산하고 수급관리시스템도 개선해 엔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상 최대치의 농식품 수출규모를 달성했다. 또한 중국, 할라시장 등 전략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인 알리바바에 입점하고 에리토랑, 에이티움 등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임 시에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을 마무리하고, 중장기 농정개혁 기반과 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이나 AI 구제역 방역 등 현안을 조기에 해결해서 큰 위기를 벗어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밖에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식품 외식산업시대 개막, 실물경제를 체감하는 농정시책 추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대구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가.

▲대구에는 동촌초등학교, 경성중학교, 경북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등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우고 자란 고향이다. 대학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졸업 후 국가공무원으로 중앙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기까지 청춘을 바친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구를 떠나 중앙에서 내무부, 국세청, 외무부 등 정부부처의 요직을 거쳐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EO,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대구는 항상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사진/손진형 기자 son@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협의체 출범... 내달 합당

오늘부터 매일 비공식 협의 가져 지방선거 앞두고 인재 영입 박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통합추진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정운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2월 내 신설 합당 방식의 통합 완료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정당의 탄생을 염원하는 국민의 존엄한 뜻을 받들고, 구시대 전유물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의 통합을 도모할 것”이라며 “양당의 단순한 합당이 아닌 신설 합당 방식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 출범회의에서 양당 의원들이 손을 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태규·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을 취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3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당원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

해 2월 이내에 통합 완료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당에 공동 실무지원팀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설 합당 방식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사실상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원들의 당적은 그대로 승계된다.

이날 출범한 통합추진협의체는 4일부터 매일 비공식 협의를 갖고 세부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통합 시기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진행상황을 보며 통합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추진협의체에서 양당이 신설 합당 방식을 택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분을 나눠먹는 형식이 된다면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기 어

려울 것”이라며 “외부의 개혁세력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신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드라이브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가능한 의원들부터 하고 있다”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대파 의원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반대파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도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안철수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당원)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라고 강변했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발언”이라며 “안철수 대표의 독재적 사고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자원 배분’ 금융 본연 역할 다하면 소득불균형 해소”



전문가가 말하는 ‘포용 금융’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지배구조 개선, 복지지출 확대 등과 같은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에선 시중은행과 같은 1금융권이 앞장서 관련 상품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금융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이 본래의 역할을 잘 해나간다면 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이 같은 자금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성’ 무시한 금융정책, 금융 양극화 야기

최근 일각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대출 위주의 과도한 영업 행위로 올 3분기 기준 1419조원의 가계부채 급증세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은행산업은 당기순이익만 8조원을 넘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의 ‘공공성’ 등을 무시한 정책으로 자급의 금융



조영철 고려대 교수
수익성 중심 정책으로 ‘금융 배제’ 현상 심화

양극화 문제를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금융은 원래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분을 해야 하는 등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은행이) 적절한 자금 배분이라는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수익성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 등에 치중한 안정적 영업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업으로 ‘사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공공성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에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금융은 ‘남의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며 “‘소비성 금융’에서 ‘생산성 금융’으로 역할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고심하고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제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의 본연의 기능임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공공성·공정성 중시해야 1금융권 관련 상품 개발

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장관을 지낸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수익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사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두면서부터다”고 진단하며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이 수익성 중심이 되면서 금융의 공공성은 크게 약화됐고 오히려 수수료와 금리로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등 수익성에 도움이 안되는 고객은 암암리에 밀어내는 경영전략을 거리낌 없이 실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안정적 직업을 가진 고소득층은 기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서민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자산과 불로소득을 늘린 반면 저소득층에겐 금



김용기 아주대 교수
포용 범위 국한돼 제한적 ‘금융 민주화’ 이뤄내야

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금융 배제’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이 같은 금융 접근성 격차 문제가 완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금융정책이 금융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 성과 평가 안돼, 1금융권 앞장 서야’

포용적 금융은 현재 우리나라뿐 만이 아닌 전 세계적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선포된 바 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신기술로 인해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의 확산은 금융포용의 기회로 작용한다”며 “이제는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공동체 기반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며 혁신적 기술의 플랫폼 차원의 금융서비스가 금융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이익만을 공유하는 사회에서 손실도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용적금융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할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포용금융을) 단기적 성과로 평가해선 안되며 1금융권이 앞장서 관련 상품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엇보다 이를 운용하는 금융인이 금융의 주주가 포용금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최근 포용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가 저신용자의 신용회복과 채무탕감 중심, 서민금융을 위한 노력에 국한돼 제한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혁신의 결과와 혜택이 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이뤄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발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지난해 은행권 순이익 10년 만에 ‘사상 최대’ 13조

〈연도별 은행권 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종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DGB금융지주	3,019	3,330	3,721
하나금융지주	13,997	20,064	21,552
KB금융지주	2,019	2,633	2,809
KB금융	21,902	34,149	33,363
광주은행	1,034	1,517	1,567
BNK금융지주	5,181	5,665	6,018
기업은행	11,646	15,030	15,635
우리은행	12,775	16,845	17,392
신한지주	28,249	33,580	32,383
합계	99,822	132,812	134,439

*2017년·2018년은 추정치 /자료:에프엔가이드

전년 약 10조 비 30% 이상 급증 4분기엔 총당금 등 비용 반영할 듯

지난해 국내에 상장된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순이익이 1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은행 순이익이 1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급증한 가계대출로 이자이익은 늘어난 반면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되면서 대손비용이 크게 줄어 들었다. 이미 3분기 실적 만으로도 사상 최대 순이익이 예고되면서 은행들

이 4분기에는 총당금이나 희망퇴직 등 비용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상장된 KB금융과 신한지주, KEB하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광주은행 등 9개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13조 2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9조 9822억원 대비 30%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연간 순이익은 지난 2007년 10조 6277억원을 고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6조 1292억원, 4조 9512억원으로 실적이 대폭 악화됐다. 반면 지난해는 KB금융과 신한지주, K

EB하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5개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만으로도 순이익 추정치가 11조 966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순이익이 각각 3조 4149억원, 3조 3680억원으로 3조원을 웃돌았다. KEB하나 역시 전년보다 40% 이상 급증하면서 순이익 2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난해 순이익 추정치는 1조 6845억원, 1조 5030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31.9%, 29.1%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에는 총당금 등의 비용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분기까지 이미 2016년 순이익을 넘어섰고 결산 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최대의 비용반영이 예상된다”며 “성과급 지급과 희망퇴직, 미뤄놓은 판관비 집행이 예상되고, 총당금 최대 반영과 박스(부실 털어내기) 등도 예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딜라이브와 관련 감액손실과 추가 총당금 외에 은행권 공통으로는 자기앞수표 미회수분 출연금이 영업외비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망도 밝다.

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예대마진은 올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은행들은 내년에는 기업 대출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광화문, 삼성·강남역 누르고 상권 1위… 매출 6조 육박

SKT 상권분석 서비스 ‘지오비전’

3년 전 20위… 매출 8배 증가



상권 가운데 20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 조사에선 8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며 5조 8355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광화문 상권은 도보로 10~2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시청역과 종각역 상권의 매출을 묶을 경우 매출 규모가 1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역 인근 상권은 5년 전 1845억원의 연매출로 100대 상권 가운데 89위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3조 8080억원으로 연매출 5위를 기록했다. 종각은 소비인구가 광화문과 시청역 상권으로 일부 이동하며 5년 전과 비교해 2단계 낮아졌으나

여전히 서울의 대표 상권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반면, 2013년 전국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강남역 남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13위까지 매출 순위가 떨어졌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중 이어진 촛불집회 등 대형 행사로 인해 소비 인구가 강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남역 남부 상권의 연매출 순위 하락은 삼성 서초사옥 인력의 유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의 하도훈 지오비전 담당 부장은 “강남역 남부 상권의 반대급부로 삼성디지털시티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경우 조사 이래 최초로 연매출 순위가 100위권 내(81위)에 들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인당 월평균 매출 1위도

〈전국 10대 상권〉

단위: 억원

순위	지역	상권	매출 男	매출 女	전체
1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38,524	19,831	58,355
2	서울 강남구	삼성역	22,935	30,764	53,699
3	서울 강남구	선릉역	59,597	18,272	47,870
4	서울 강남구	강남역 위	21,895	19,000	40,895
5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22,025	16,056	38,080
6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15,668	14,929	30,597
7	서울 강동구	천호역	10,944	14,471	25,415
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인근	6,276	9,252	15,528
9	울산 남구	남구청	7,662	3,352	11,013
10	부산 중구	영주·중앙·국제시장 인근	5,664	3,664	9,329

*2016.11~2017.10 기준

/SK텔레콤

390만원을 기록한 광화문역 상권이라고 밝혔다. 2위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역 인근 상권이다. 연매출 규모는 7위에 불과하지만, 인당 월평균 매출은 320만원으로 광화문역과 함께 유이하게 연평균 매출

390만 원 이상을 보였다. 이 밖에 선릉역(3위)이나 삼성역(5위), 강남역 북부(6위) 등의 다른 강남권도 인당 매출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390만 원 이상을 보였다. 이 밖에 선릉역(3위)이나 삼성역(5위), 강남역 북부(6위) 등의 다른 강남권도 인당 매출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나인 기자 silkni@

1회성 기부는 이제 그만 “꿈을 이뤄드려요”... 착한 기업들의 ‘드림 마케팅’

공유가치 창출... 전 세계로 확산
CJ그룹, 신인작가 지원 ‘오픈센터’ 오픈
파나소닉코리아, ‘대학생 챌린지’ 진행
아디다스코리아, 소외계층 스포츠 교육



오픈센터 /CJ그룹

최근 가맹점 대상 갑질, 사내 성추행 등의 이슈가 불거지며 많은 기업들이 신뢰도를 잃었다. 이에 반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 기업’들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착한 행보’가 최근 후원금, 물품 기부 등의 사회공헌활동에서 기업들의 특성을 살린 공유가치창출(CSV)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다 진화된 형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CSV 프로그램 중에서도 현실에 부딪혀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림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CJ그룹은 CSV 트렌드를 가장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다. CJ그룹은 ‘주변의 다양한 협력업체 및 사회 구성원과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고 강조해 온 이재현 회장의 철학에 따라, 국내 기업 중 최초로 CSV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의 창업이념인 ‘사업 보국’은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CSV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세계적인 경제경영 월간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하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50’에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선정됐다.

국내 젊은 문화예술인들 후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CJ E&M과 CJ문화재단이 함께 드라마·영화 창작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 및 데뷔 지원 공간 ‘오픈 센터’를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에 오픈했다. ▲신인 드라마/영화 작가 모집 ▲대본/시나리오 기획개발 ▲영상 제작 ▲편집 및 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창작자 육성 및 데뷔 지원사업이다. CJ E&M과 CJ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두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파나소닉코리아는 지난해 ‘제 9회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를 진행하며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할 만큼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직접 파나소닉 브랜드를 홍보하고 기획안 작성부터 캠퍼스 내 PR까지 직접 실행하는 프로젝트다.

홍보 혹은 광고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활동을 통해 미리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고, 특별한 추억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파나소닉은 대상 1팀에게 1000만원의 상금과 파나소닉 일본 분사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꿈을 꾸는 것을 적극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수상한 13개 팀에게는 2학기에 진행되는 대학생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CSR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아동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는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프로그램을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축구 클리닉 /아디다스



제9회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 시상식 /파나소닉

진행하고 있다. 아디다스 마이드림 FC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을 접하기 힘든 지역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자철 선수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축구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스크립야구 브랜드 스크라이크존을 운영하는 뉴턴콘텐츠의 기업 비전은 ‘상생’이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넘어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상생’에 힘쓰고 있다.

스트라이크존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7 박찬호 유소년 야구 캠프(캠프 61)’를 후원하며 야구 꿈나무들에게 야구에 대한 꿈을 지원하고 있다. 캠프 61은 박찬호 선수와 국내의 프로선수들

이 코치진으로 참여하는 유소년 야구캠프로, 프로식 훈련, 부상방지를 위한 관리 교육 그리고 프로 선수들과의 1:1 멘토링 세션 등을 통해 야구 꿈나무들이 야구에 대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17 독립야구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해 독립리그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야구단에서 방출되거나 진출하지 못한 야구인들이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꿈꾸고 프로야구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야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서울저니맨 외국인구단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에 소속 투수 이효준을 첫 입단 선수로 배출했다. 이효준은 서울저니맨 외국인구단에서 6개월의 훈련 과정과 독립리그를 거친 뒤 우수한 평가와 함께 최종 입단을 확정지은 바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건배사에 맞춰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구·국민의당 박선숙·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 광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연합뉴스

정부 ‘규제개혁’ 약속에 기업 ‘투자확대’ 화답

재계 신년인사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대비

경제계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대비해 공정경제와 상생경영으로 변화를 위한 단추를 잘 꿰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에는 개선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이를 찾아 바꿔주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기업이 인프라 투자와 인재양성에도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 영등대로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이 불참하면서 조출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는 3%가 넘는 성장과 무역 1조 달러 등 당초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으며,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관문으로 불리는 이 고지를 우리가 불



앞줄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손경식 CJ그룹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과 반세기 만에 오른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자람이자 커다란 성취”라고 말했다.

이어 “3만 달러 수준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지적해 주신 분들도 많았다”며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 그리고 기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것만이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과제들이 ‘이해관계’라는 허들에 막혀 있어 안타깝다”며 “구성원들 간 신뢰를 단단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타협해서 ‘변화’를 위한 단추들을 잘 꿰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기업들이 성숙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국민들의 눈높

이에서 보다 솔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은 기업들이 많은 일들을 새롭게 벌일 수 있게 설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엄중한 안보현실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같은 악재 속에서도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했다”며 “우리 경제는 터널을 벗어난 듯 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올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다”며 “3만 달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혁신성장을 이뤄 4차 산업혁명에 조속히 진입해야 하며 수출선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이주열 “금융시스템 안정성 공고히”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해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는 데 계속 힘써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 경제가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모처럼 맞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우리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Double Synergy

덕성을 만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자

더 큰 세상을 향한 당신의 꿈에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덕성의 상상에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됩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창의교육 선도대학
덕성여자대학교



2018 학년도
정시모집 안내

인터넷원서접수 2018년 1월 6일(토) ~ 2018년 1월 9일(화)
제출서류접수 2018년 1월 6일(토) ~ 2018년 1월 11일(목)
문의 02)901-8189~8190/8695

※ 자세한 내용은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enter.duksung.ac.kr) 참조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신용등급 떨어질까 전전긍긍 크레딧 거품제거는 긍정효과

개별기업 독자신용 평가의 명암

● 드러나는 민낯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 전망 등급 하락엔 조달비용 확대

#.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은 최근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수익성에 비해 높은 차입부담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기자재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올해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두산중공업의 부채비율은 178%다.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만 3600억원 수준이다.

신용등급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웃돈을 주고 돈을 빌려야만 한다. 과거에 웅진,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등 믿었던 대기업이 줄줄이 무너진 모습을 본 투자자들은 최근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짙다.

갈 길 바쁜 금융사와 기업들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가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긴장하는 이유다. 계열사나 모기업의 그늘이 컸던 기업들은 신용 강등 쓰나미를 만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체신용도는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비경상적 지원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등급을 뜻한다. 지난해 민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기업까지 확대된다.

시장에서는 자체신용도 도입에 따른 충격보다는 ▲신용등급의 신뢰성 제고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기업 건전성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신용거품 얼마나 빠질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기준 지난해 10월 말 현재 자체신용도 공개 대상은 219개사다.

이중 70.3%에 해당하는 154개사는 자체신용도와 최종등급이 동일했다.

반면 60개 업체는 자체 신용도보다 1등급 높게 평가됐고, 3개 업체는 2등급 가량 높았다.

반면 2개업체는 1등급이 낮았다.

AA~BBB+ 구간(자체신용도 기준 A+~BBB)에서 상향 비율이 높았다. 특히 A등급의 경우 대상 업체 24개 중 14개 업체(58.3%)에서 상향이 이뤄졌다. 반면 AA+이상과 BBB 이하에서는 대부분 자체 신용도와 최종 신용등급이 같았다.

자체신용도 공개 대상 219개사 중 국내 주요 16개 그룹 업체는 102개사였다. 한신평이 이를 분석한 결과 51개 사는 1등급 가

량 높았다. 1개사는 등급이 두 단계나 높게 평가됐다.

등급이 더 낮게 평가된 그룹 계열사는 1개사에 그쳤다.

49개사는 등급 변동이 없었다. 한국신용평가 김용건 실장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재무적·사업적 연계성, 평판 리스크 등이 반영된 결과다"고 분석했다.

나신평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 240개사 중 자체신용도와 최종신용등급 간 차이가 없는 기업은 73.8%(177개사)였다. 자체신용도 대비 최종신용등급이 1등급 높게 평가된 곳은 24.2%(58개사), 2등급 높게 평가된 기업은 1.3%(3개사)였다. 반면 1등급 낮은 기업은 0.8%(2개사)에 불과했다.

◆등급평가 '신뢰' 전제 돼야 시장 발전

기업들은 제도가 도입되면 곤죽을 것처럼 얘기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비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계 한 재무담당 부서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신용등급이 A-이하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자체신용도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업력이 없는 계열사는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불안감을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

금융 영토확장 '지역 넘어 글로벌' 조직 개편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W 금융 예측 2018

② 다시 뛰는 지방은행

회장직·행장직 분리로 안정화 지난해 이어 실적 상승세 전망

지난해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등으로 풍랑을 맞았던 지방은행·지주들이 조직을 정비하고 2018년 영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이들은 올해 디지털·글로벌 부문을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주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하는 등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조직 안정을 이루면서 그룹 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영전략은 '디지털·글로벌·비은행확대'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지주 CEO들은 올해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글로벌·비은행 확대' 등을 꼽았다.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은 '비은행·비이자 부문' 강화에 중점을 뒀다. 김 회장은 올해 경영 방침을 '그레이트 하모니 2018, BNK신 경영플랫폼 구축'으로 정하고 수익성·건전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핵심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WM), 디지털, 글로벌 등 핵심사업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그룹의 비은행·비이자 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DGB금융지주 박인규 회장은 '혁신'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해 경영 목표를 '변화에 도전하는 NEW DGB'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디지털금융의 선도에 나선다.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신성장 동력 창출 전략도 추진한다.

JB금융지주는 '디지털'에 초점을 뒀다. 전복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역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내외 기반영업 강화, 전략상품 실적 제고를 비롯해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은 "디지털 금융 중심의 금융환경 전환은 지방은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라며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을 암시했다.

지방은행·지주의 올해 실적도 지난해 이어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의 '2018 산업 전망-은행·신용카드-언더퍼폼(Underperform) 종목들에 초과상승 기회 있다'란 보고서에서 BNK·DGB·JB금융지주의 2017년 연간 실적 전망치는 1조1500억원으로 전년(9330억원) 대비 8.8%(8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2018년엔 1조1090억원으로 2017년 대비 8.5%(94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지방은행들은 2017년 중 일회성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데다 실적 서프라이즈도 없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발생여지가 적다"며 "따라서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순이익 상당 폭이 증가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배구조 안정화... DGB는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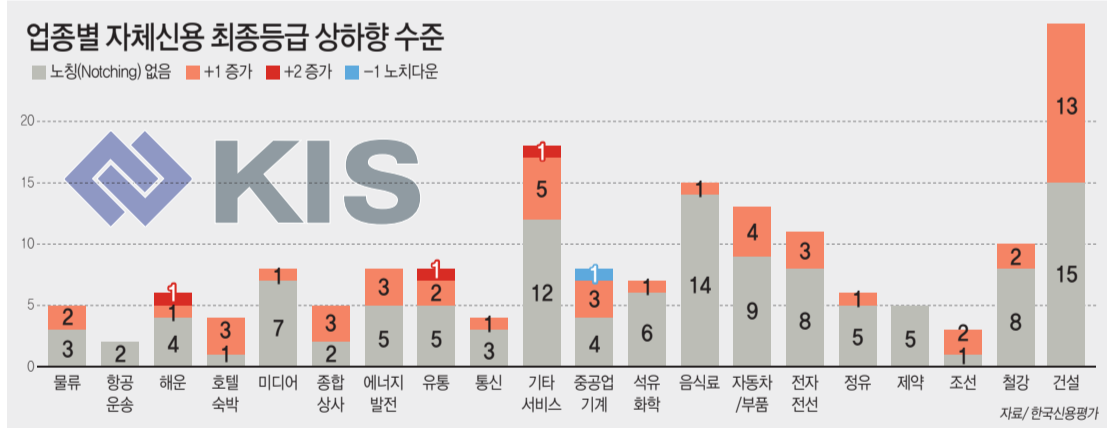
지방은행·지주들의 지배구조 안정화도 실적 및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은행·지주들은 'C EO 리스크'로 홍역을 치룬 바 있

다. 특히 BNK금융지주의 전임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재무적 지배구조 등의 한계를 마주했다. 이에 BNK금융은 창립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김지완 회장을 선임했고,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백년대계위원회'를 꾸려 조직 혁신에 나서고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며 조직 안정화에 역량을 쏟고 있다.

BNK를 시작으로 금융지주의 권력 분산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JB금융지주도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김한 회장은 2019년 3월 24일까지 지주 회장직만 수행하기로 했다. 임용택 전복은행장도 연임에 성공해 2019년 3월까지 전복은행을 이끌기로 했으며, 광주은행은 창립 49년 만에 내부 출신 토종 은행장인 송종욱 행장을 선임하면서 안정적인 구도가 정비됐다. 이에 따라 올해 광주은행과 전복은행의 '투뱅크 체제'가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DGB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회장과 행장(대구은행) 겸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CEO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았다. 박인규 지주 회장 겸 행장이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상태가 때때로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현재까지 직을 이어가고 있다.

/채성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애플, 배터리 교체 기준 철회

교체 필요한 사용자 →누구나

애플이 배터리 교체 기준을 철회했다. 사용자 원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때문이다.

3일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아이폰 사용자에게만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한 보상안을 철회했다. 아이폰6 이후 출시된 모델 사용자는 누구나 29달러를 지불하면 배터리 교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은 배터리 정상 기준에 대해 "50회 충·방전이 이뤄진 후 배터리 성능이 80% 가량 유지되면 정상 제품"이라고 설명해왔다. 배터리 게이트 파문 이후 보상안을 발표하면서도 애플 지니 어스바의 테스트를 거쳐 성능이 80% 미만인 제품에 한해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플이 한국 아이폰 배터리 교체를 시작한 2일 오후 서울의 한 애플공식서비스센터. /연합뉴스

맥루머스는 "애플이 통합 AS 센터 '지니어스바'에서 배터리 교체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게만 교체를 지원해주겠다는 기준을 철회해주겠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며 "29달러만 내면 조건없이 바꿔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 정책이 시작된 올해 이전에 배터리를 바꾼 사용자에게도 애플이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

지엠 임팔라 500만원 파격 할인

완성차업계 공격적 프로모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새해 초부터 고객 잡기를 위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 5개사가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와 함께 새해를 첫차를 구매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을 진행한다.

가장 할인이 높은 브랜드는 한국지엠이다. 한국지엠의 2017년형 임팔라는 최대 할인이 500만원을 넘는다. 2.5LT는 기본 할인 322만원, 특정 월 생산분 할인 150만원, 재구매 혜택 50만원 등을 합쳐 최대 522만원이나 차값이 내려간다. 할인은 무려



현대차 코나.

14.6%이다. 모델별 구매조건을 모두 반영하면 할인은 캡티바 450만원, 올란도 330만원, 아베오·크루즈 300만원, 카마로 270만원, 말리부 200만원 등이다.

현대차는 단종모델과 지난해 재고분에 대한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다. 지난해 생산이 중단된 아

슬란은 기본가격대비 약 8% 저렴한 3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지난해 9월 이전 생산분에 한해 기본 i40, 쏘나타 뉴라이즈, 코나, 맥스크루즈는 최대 100만원 가격을 낮췄다. 이중 쏘나타 뉴라이즈는 기본 50만원 할인, 맥스크루즈는 3% 할인이 추

가된다. 지난해 베스트셀링카인 그랜저IG도 50만원 할인에 재고분 30만~50만원의 혜택을 합쳐 최대 100만원 가량 저렴해진다.

기아차는 1월 선착순 1만명에게 최대 180만원을 할인해주는 '굿바이 페스타'를 진행한다. 대상차종은 ▲모닝(최대 50만원) ▲레이(2017년형, 최대 80만원) ▲K3(최대 160만원) ▲K5(최대 180만원) ▲K7(최대 150만원) ▲스팅어(최대 150만원) ▲스포티지(최대 130만원) ▲쏘렌토·카니발(최대 80만원) 등이다. 아울러 이달 '스토닉' 시승 고객에게 20만원을 할인해준다.

르노삼성은 현금할인과 옵션 지원 두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기모델인 QM6는 40만원 상당 옵션 지원 또는 30만원 현금 할인, SM6는 60만원 상당 라이팅 패키지가 69만원 상당의 멀티내비게이션 중 각각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양성근 기자

“이젠 TV도 말귀 알아듣네” 시탑재 ‘씽큐 TV’ 출시

딥씽큐·구글 어시스턴트 탑재
음성으로 채널변경·검색 가능
구글연동 IoT 가전제품 제어도
기존제품 比 노이즈 절반 줄여

LG전자가 인공지능(AI) 브랜드 ‘씽큐’의 첫 제품으로 ‘씽큐(ThinQ) TV’를 선보인다.

씽큐 TV에는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와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사용자는 음성만으로 채널 변경, 콘텐츠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또 맛집 검색 등 구글이 제공하는 정보 검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식당예약이나 피자주문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오는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18’에서 AI을 탑재한 ‘올레드 TV 씽큐’, ‘슈퍼 울트라 HD TV 씽큐’ 등 2018년형 ‘씽큐 TV’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LG 씽큐 TV에는 딥씽큐와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사용자는 음성만으로



LG전자 모델이 ‘씽큐 TV’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화면모드 변경,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등 다양한 TV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 TV와 사운드바, 블루레이 플레이어, 게임기 등 다른 기기와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네마 모드로 변경해줘”,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 끝나면 꺼줘”, “게임기에 연결해줘” 등과 같이 음성만으로 TV를 제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일정, 맛집 검색, 최신 스포츠 경기 점수

확인 등 구글이 제공하는 정보검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식당예약이나 피자주문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LG 씽큐 TV는 TV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스마트 조명 등 구글과 연동되는 IoT 기반의 가전 제품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urn on Air Purifier(공기청정기 켜줘)”라고 말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LG전자는 미국을 시작으로 구글 어

시스턴트 적용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TV 주요모델에 독자 개발한 화질집 ‘알파9’을 장착했다. 알파9은 올레드 TV의 화질 성능을 향상시켜 생생하고 현실감 넘치는 화질을 구현한다.

특히 알파9이 적용된 올레드 TV는 기존제품 대비 노이즈를 절반으로 줄였다.

총 4단계 노이즈 저감 프로세싱으로 화면상의 미세한 잡티를 제거해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명암비, 선명도, 입체감 등을 개선해준다. 이를 통해 더 자연스럽게 ‘선명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색상보정 알고리즘은 7배 이상 촘촘하게 나눠 정교해졌다.

LG전자는 나노셀 기술에 ‘풀 어레이 로컬디밍’ 기술을 더한 슈퍼 울트라HD TV도 선보인다.

올해 초 첫 선을 보인 나노셀은 약 1나노미터(nm) 크기의 미세 분자구조를 활용한 기술이다. 극미세 분자들이 색의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보다 많은 색을 한층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LG전자는 여기에 풀 어레이 로컬디밍 기술을 더해 LCD TV의 약점인 명암비와 빛 번짐을 개선했다. 로컬디밍은 백라이트의 LED 광원을 부분적으로 켜고 끄는 기술이다. 화면의 어두운 부분은 LED 광원을 꺼주고, 밝은 부분은 켜주는 식이다.

이밖에 LG전자는 2018년형 올레드 TV와 슈퍼 울트라HD TV에서 돌비비전, HDR 10, HLG(하이브리드 로그 감마) 등 다양한 규격의 HDR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액티브 HDR’ 기능을 추가했다.

액티브 HDR는 기존 HDR영상에 프레임마다 화질정보를 추가로 넣어주는 ‘인핸스드 다이나믹 톤 맵핑’ 기술로 한층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을 구현한다.

LG전자는 지난해 올레드 TV에만 적용했던 입체음향 시스템 ‘돌비 애트모스’를 슈퍼 울트라HD TV까지 확대 적용한다.

LG전자 HE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은 “인공지능과 더욱 완벽해진 화질로 기존 TV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갑작스런 V30 컬러마케팅... 후속폰 출시 지연? ‘소통경영’ E1, 23년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LG전자, 라즈베리 로즈 색상 공개
G7 공개지연 원인은 AP수급문제



LG전자가 V30 라즈베리 로즈 색상을 CES 2018에서 공개한다.

/오세성 기자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V30에 컬러 마케팅 전략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올해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 작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3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2018’에서 V30 라즈베리 로즈 색상이 공개된다. V30은 지난해 9월 21일 출시 당시 모로칸 블루, 클라우드 실버, 오로라 블랙 색상이 제공됐고 10월 17일 라벤더 바이올렛 색상을 추가로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라즈베리 로즈 색상은 강렬한 채도의 레드 계열 색상이다. LG전자는 “연초 모임이나 파티에 어울리는 진한 색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사양은 이미 출시된 V30과 동일하다.

LG전자 하정욱 단말사업부장은 “강렬하고 사랑스러운 라즈베리 로즈 색상 V30가 고객들의 모바일 라이프에 열정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월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신제품 출시를 한두 달 앞두고는 대기 수요가 발생해 기존 제품 판매량이 급감한다. 혹여 기존 제품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신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V30 라즈베리 로즈 모델과 G7이 경쟁하는 구도가 그려지는 셈이다.

업계는 G7이 MWC 이후 공개될 예정이어서 V30에 신규 색상을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G7 공개 지연 원인으로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수급 문제가 지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LG전자가 G6를 출시했을 때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구형 AP를 탑재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LG전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보다 퀄컴의 신형 AP인 ‘스냅드래곤 845’를 채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냅드래곤 845는 전작 스냅드래곤 835에 비해 성능이 18% 향상됐고 전력효율은 15% 개선됐다.

이 관계자는 “신형 AP의 경우 초기 수율이 낮아 생산량이 적다”며 “이번 AP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기 물량이 전부 삼성전자 갤럭시S9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다른 스마트폰들이 갤럭시S9과 같은 시기에 공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노동조합, 임금 모든 사항 회사 위임

에너지기업 E1이 노사 화합과 안전 준수에서 업계 모범을 보였다.

E1은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노동조합이 2018년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했다고 3일 밝혔다.

시무식에서 노동조합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회사의 비전 달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노경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E1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루게 됐다.

또한 E1은 1984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 34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재해를 기록, 3일 무재해 23배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정유·가스업계 및 민간 에너지업계 최장 기록이다.

E1이 23년 연속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과 34년 무재해라는 대기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구자용 회장을 비롯한 전 직원 간의 끈끈한 신뢰를 쌓아온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 회장은 분기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해 회사 현황을 공유한다. 이후 참석자 모두가 자유롭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13층 E1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구자용 E1 회장(왼쪽)과 김충민 E1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1

게 발언하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캔미팅을 연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미션이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된 셈이다.

구자용 회장은 시무식에서 “23년 연속 임금 무교섭 위임으로 상생과 화합의 미래 지향적인 노경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회사를 믿고 맡겨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랑스러운 노경 문화를 이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랑인 무재해를 지속 실현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이라는 명성을 이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E1은 추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오세성 기자

SK이노베이션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현장 경영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이 ‘딥 체인지 2.0’ 가속을 위해 새해 첫 시작부터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총괄사장과 계열 자회사 사장들이 지난 1일 주력 생산기지 울산CLX를 방문하고 2일에는 서울에 위치한 SK서린사육 전 구성원들과 만나는 등 뜨거운 신년 벽두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모든 경영진은 새해 첫 날인 1일 울산CLX를 방문했다. 이들은 각 회사 생산현장을 돌아보며 연말·연휴·연초에도 쉬지 않고 안정조업과 내수·수

출제품 공급에 여념이 없는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준 총괄 사장은 “작년 한 해 안정조업에 최선을 다해준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에 최대 경영실적 경신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울산CLX는 SK이노베이션의 심장임에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울산CLX의 경쟁력을 높여 딥 체인지 2.0을 가속화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울산CLX는 정유, 화학 등 이른바 ‘산업의 혈액’을 만드는 곳이다. 수직계열화된 공정을 통해 원유에서 휘발유·경유 같은 정유 제품을 추출하고 기초 화학 소재



울산CLX 동력공장 조정실을 방문한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SK이노베이션

부터 화학제품까지 한 자리에서 만들어 낸다.

2일 SK서린사육에서 임직원들을 만난 김준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 구성원이 딥 체인지 2.0 가속화를 위해 뛰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성 기자

KT 전국대리점 180곳 ‘기가 IoT 전광판’ 출시

KT는 전국 대리점 180개소에 시범 설치 및 검증 과정을 거친 소물인터넷 기반의 ‘기가 IoT 전광판’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가 IoT 전광판’은 고품질 LED 전광판에 소물인터넷(LTE-M) 모듈을 탑재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광고 콘텐츠 변경하고 제어할 수 있다. 또 원하는 광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저작서비스도 제공한다.

‘기가 IoT 전광판’은 41인치 대화면(972×396×79mm)의 크기다. 선명한 고품질 LED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제품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큰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여러 대의 전광판을 연결해 하나의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멀티 비전’ 기능을 제공한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위해 본사에서 모든 지점의 전광판을 제어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기능도 있다. 기가 IoT 전광판은 이달 중순부터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김나민 기자 silkni@

조선 빅3 CEO “수주절벽 대신 없다… 경쟁력 높여 일감 확보”

현대·삼성·대우조선해양
신년사 통해 핵심과제 제시

“작년까지 기록적인 수주절벽
모든방법 동원 원가경쟁력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지난해 최악의 ‘수주절벽’을 겪은 국내 조선업들이 ‘일감 확보’에 총력을 펼친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수장들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중국·동남아시아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물량 확보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2016년에 지난해까지의 기록적인 ‘수주절벽’은 중국과 싱가포르 조선사들의 낮은 가격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조선 ‘빅3’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원가경쟁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업계 말형인 현대중공업의 강환구 사장은 신년사

를 통해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가경쟁력을 필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조선 생산조직의 공정별 운영 및 도크별 선조전 문화 ▲엔진 주요 기능품 국산화 ▲전략적 기자재 구매 ▲설계 품질 향상 및 자재

비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하는 긴축 경영 등을 제시했다. 오는 2020년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화두가 된 ‘친환경’ 선박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기술과 품질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사장은 “올해는 통합안전교육센터 건립과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원년’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70여개의 안전교육과정을 진행해 안전교육의 일대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삼성중공업을 이글게 된 남준우 신임 사장은 일감 확보를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경영정상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감절벽의 악순환을 끊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남 사장은 “올해는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일감을 제 때 확보하려면 기술 개발, 낭비 요소 및 비효율 제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물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ENI 코랄, BP MAD DOG2 등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을 철저히 준수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현장의 모든 임직원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개선 활동에 적

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설계는 설계 개정률을 최소화하고 물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추가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연구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스마트십 및 친환경 선박 개발, 생산 자동화 방안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내년 5월초 완료를 목표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4일 본사에서 신년회를 열고 신년사를 발표한다. 이날 정 사장은 신규수주 확대와 수익성 개선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철저한 생존전략 실행,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정착, 관리체계의 고도화, 희망과 활력의 일터 만들기 등 4가지 경영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초고속 전송 ‘QLED 커브드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 美 CES서 선보여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2018’에서 인텔의 차세대 데이터 전송 규격인 ‘턴더볼트3’를 지원하는 QLED 커브드 모니터 ‘CJ791’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턴더볼트3는 USB 3.0 보다 8배 빠른 최대 40Gbps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HDMI 1.4의 4배에 달하는 비디오 대역폭을 제공하는 차세대 데이터 통신 규격이다. UHD급 고화질 영상을 모니터 2대에서 끊김 없이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 CJ791은 34형 크기에 21:9 화면비를 제공하는 광역 디스플레이로 HD보다 2.5배 높은 해상도인 울트라 와이드 QHD(3440×1440)를 지원한다. 멀티태스킹 환경과 그래픽·게이밍 등 고화질 작업에 최적화된 모니터다.

이 제품은 원당당 기술이 적용돼 sRGB 125% 수준의 높은 색 영역 재현으로 어떤 장면에서도 세밀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1500R 곡률이 주는 시각적 편안함과 몰입감도 장점이다.

삼성전자는 CJ791에 커브드 모니터 제



품 최초로 USB-C형태의 단일 포트에 턴더볼트3 통신규격까지 지원하는 차세대 통합 포트를 탑재했다.

삼성 노트북9 울웨이즈 일부 모델과 맥북 등 턴더볼트3를 지원하는 고성능 노트북 PC와 연결하면 고화질·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USB-C 단자와도 완벽히 호환되기에 최대 85W까지 정격 출력을 지원한다. 케이블 하나로 그래픽 출력과 동시에 노트북 PC 충전 또는 스마트폰 고속 충전까지 가능한 셈이다.

게임 모드를 통해 색감과 색상 대비를 직관적으로 조정해주며 4ms(0.004초)의 빠른 응답속도로 끊김 없는 화면도 구현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SK하이닉스 ‘사회적 가치 창출’ 본격화

저전력 제품생산 주도·협력사 환경개선 지원

임원급 구성 ‘지속경영추진’ 신설

SK하이닉스가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창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새해 경영방침 중 하나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정하고, 연발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전담하는 임원급 조직 ‘지속경영추진’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박현 SK하이닉스 상무를 담당으로 하는 지속경영추진은 반도체 사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추진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제조 공정에서 수질·대기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리드하고, 저전력 신제품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해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의 환경, 안전, 건강 수준 개선을 지원하는 등 각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가치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지표가 필요



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약 세달 간에 걸쳐 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교수 등과 함께 논의와 검증을 거쳐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했다.

시범 측정 결과, 지난해 1~3분기 동안 SK하이닉스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금액은 5조15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거둔 재무성과(당기순이익)인 7조4220억원의 약 69% 수준이다.

사회적 가치 측정에 활용된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는 생산 공정 및 제품 사용상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 개선 정도, 협력사 금융·기술·교육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 및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와 같이 기업-환경-사회생태계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반영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 금액,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인 법인세, 임금, 배당 등 사회의 경제 주체들에게 환원되는 금액 등도 포함했다.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 달 말에는 그룹 관계사 CEO들이 모이는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측정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CJ헬로, 자녀 학습 돕는 교육전용폰 선보

‘EBS 열공폰’ 출시
공부한만큼 일반앱 이용

헬로모바일이 ‘EBS열공폰’으로 차별화 행보를 이어간다.

CJ헬로는 일반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량을 제한하면서 학습콘텐츠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EBS열공폰’을 단독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열공폰은 EBS 강의를 들을수록 일반 앱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돼 자녀 스스로 공부하도록 독려하는 학습보상제 스마트폰이다. 학습강의를 1시간 들을 때마다 ‘바른습관 포인트’가 5000포인트 충전된다. 이 포인트로 일반 앱을 30분 정도 사

용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학습현황뿐만 아니라 ‘무슨 앱을 열거나 썼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EBS 강의는 초·중·고 학습, 영어, 교양 등 7개 카테고리에서 11만 개로 구성됐다. 개통일로부터 30개월간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요금제는 ‘EBS열공 500M B(월 2만9700원, 음성 30분)’, ‘EBS열공 2GB(월 3만9600원, 음성 100분)’ 두 종류로 구성된다.

EBS열공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J7’으로 운영된다. 단말기 가격은 59만 4000원이고, 공시지원금은 29만 7000원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카톡으로 영화 예매하고 음악 들어요

카카오, 순차 업데이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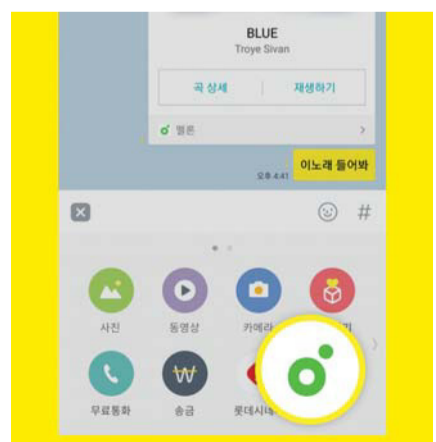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고 ‘롯데시네마 영화예매’, ‘멜론 워드 카카오’, ‘문자 모아보기’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생활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더보기탭을 개편했다. 날씨를 비롯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스타일, 장보기,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의 생활 서비스를 전면 배치했다. ‘MY’ 메뉴도 추가했다. MY에서는 카카오톡에서 구매한 상품 내역과 함께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 관심 상품, 관

심 스토어 등을 모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서비스도 선보였다. 더보기탭에서 인기 영화를 보고 선택하거나, 채팅방에서 + 버튼을 누른 뒤 롯데시네마를 클릭하면 된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뒤 관람을 원하는 영화, 극장을 선택해 예매하면 된다.

‘멜론 워드 카카오’ 서비스를 제공해 음악 서비스 멜론과 연동도 강화했다. 채팅방에서 ‘멜론’을 누르면 접속 가능하다. 세대별 좋아하는 음악, 최신&인기 음악, 추천 태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멜론과 카카오톡을 연동한 유료 회원의 경우 카카오톡 내에서 전곡 감상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화면. /카카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모아보기’ 기능도 추가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내역을 카카오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손보·증권 M&A 추진... 아시아 리딩뱅크 기반 닦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020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
20개국에 171개 네트워크 구축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1등 금융그룹’ 재탈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등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올해 경영 슬로건을 ‘더 높은 시선(視線), 창조(創導)하는 신한’으로 정하고 기존 경쟁구도를 파괴할 새판을 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2020 스마트 프로젝트’ 원년

조용병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2020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 위협과 기회가 혼재된 뷰카(VUCA)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0 스마트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아시아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룹 중장기 그룹전략인 ‘2020 프로젝트’

의 실질적 성과창출 가시화를 위해 신한의 일하는 방식인 ‘SMART’를 더한 의미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올해 디지털금융과 글로벌금융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올해는 성장전략을 다각화해 미래 기회를 선점하고 글로벌과 자본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신한으로서의 신속한 전환을 이루고 원신한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신한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지

난달 GIB(글로벌&그룹 투자은행) 부분의 판교 알파돔시티 인수를 꼽으며 “지주·은행·금투·생명 겸직의 그룹 투자사업 부문(GID)을 이달 안에 출범해 그룹 차원의 고유자산운용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글로벌투자금융(GIB), 자산관리(WM), 글로벌 사업 부분의 조직개편을 통해 원신한 전략 플랫폼도 마련했다. 특히 이달 중 지주·은행·금투·생명 등 4개사 겸직의 그룹 투자사업부문(GID)을 출범해 그룹 고유 자산운용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영토 확장’을 제시했다.

신한은 지난해 ANZ베트남 리테일 인수, 멕시코 현지법인 인가, 지역별 협업을 촉진하는 컨트리 헤드(country head) 제도 시행 등 과감한 사업모델 혁신을 통해 전 세계 20개국에 171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

조 회장은 “그룹의 기본인 리테일과 기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자산관리 IB 등으로 신한 영토를 계속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아울러 유망시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신한의 위성을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 M&A로 신성장동력 발굴

신한금융은 올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M&A(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은 증권과 손해보험 쪽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조 회장은 증권사와 손보사 위주로 M&A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서도 M&A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은 비은행 부문 수익기여도가 2012년 이후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M&A에 성공하면 리딩뱅크를 가깝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KB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내준 데는 KB금융이 현대증권(현 KB증권)과 L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 전망도 좋다.

한화투자증권 성용훈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신한지주는 금리 하락구간 동안 여신전문금융업 덕분에 상대적으로 마진을 더 잘 방어해 왔다”며 “꾸준했던 판관비 감축 효과와 어우러져 내년 증익은 전국구은행 중 상위권에 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TB투자증권 김한이 연구원도 “신한은 2017년 3분기 기준 40%에 달하는 높은 비은행 자회사 기여도, 0.3% 내외에서 탁월하게 관리되던 대손비용률, 비자(VISA) 지분매각이익 등 일회성 이익으로 과거 건설성 이슈로 타행들의 실적 변동성이 높아지던 시기에도 안정적 규모의 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행의 소호(SOHO) 중심 성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신한은행은 비외국 우량중소기업 중심 여신성장 기조로 선제적 전환. 우량 중소기업여신확보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기업 연체율 0.67%·가계 0.28%
신규 연체 발생액 1조2000억 달해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9%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도 1조원으로 늘었지만 신규 연체 발생액이 1조2000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 잔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 0.43%, 중소기업대출 0.74%로 전월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3%포



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도 연체율이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이 0.19%로 전월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0.47%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대기업의 실적 호조 등으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금리 상승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B하나銀, 유망 中企·벤처 지원 강화

3.5조 규모 금융 상품 2종 출시

KEB하나은행은 중소, 벤처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의 신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새 해 첫 날인 지난 2일 ‘생산적, 혁신적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상품 2종 (Thanks to 기업대출, 산업단지 The Dream 대출)을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작년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발굴,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외 정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강화해 왔다.

KEB하나은행은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 기조와 맞물려 조화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에 은행권 최초로 기업대출 자동심사시스템을 개발·운용 중으로, 은행 자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내부 노력도 병행하는 등 보수적인 금융 관행 변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신한銀 첫 거래시 ‘이자 3배’ 기본이자율 최대 3.3% 적용

신한은행은 첫거래 상품 가입 시 기본이자율의 최대 세배의 이자를 제공하는 ‘신한첫거래 세배 드림(Dream) 적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납입액과 기간이 고정된 상품으로 매월 26만7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납입하면 최대금리 적용 시 세후로 1000만원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세배 드림 적금의 최고 이자율은 3.5%로 ▲예금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한카드(신용카드에 한함) 중 한 가지를 첫 거래 가입 시 기본이자율 1.1%의 두 배(2.2%)를 제공한다. 두 가지 상품을 첫 거래 가입하면 기본이자율의 세배(3.3%)가 적용되며, 3월 말까지 적금을 가입한 고객 모두에게는 특별 우대 이자율 0.2%포인트를 제공한다.

/채신화 기자

“주거복지 향상·금융시장 선진화 총력”

이정환 주택금융공 사장 취임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임 사장은 3일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금융시장 선진화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공사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부산 본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재임 중 중점 추진 과제로 시장친화적 ‘실사구시’ 경영체계 확립, 서민친화적 따뜻한 경영,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사장은 이어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은 부산 동아고교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 1975년 총무



이정환 주택금융공 사장이 3일 오전 부산시 문현금융로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주금공

처를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OECD 경제참사관,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경제·금융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카드 할인·혜택 조건 꼼꼼히 따져보세요”

금융꿀팁 200선

전월 이용실적·할부이자 확인 등
금감원 ‘내 카드 사용 방법’ 제시

#A씨는 커피전문점 20% 할인을 내세운 카드를 발급받아 매일 이용했다. 그러나 카드 명세서에서 받아보니 단 한 건도 할인받지 못했다.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카드들이 할인이나 혜택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지만 막상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실적이거나 이용조건을 꼼꼼히 따져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 제공 ▲무이자 할부 등은 할인·적립 제외 ▲월별 통합 할인한도 확인 ▲할부구매 시 할부이자 확인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 등을 제시

했다.

카드 할인혜택이나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인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학등록금이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할인이나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이자할부 거래도 실적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다.

통합 할인한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혜택 조건을 만족했다라도 할인한도를 넘었다면 실제 혜택은 기대 이하일 수 있다.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나 단순한 조건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상미 기자

금투협회장 선거 4파전 양상

자산운용사 '표심잡기' 총력전

지난 선거 比 운용사 80곳 늘어
후보자 4명 모두 관련 안 제시
"시간 걸려도 각자 운영돼야"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권 사장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



정희동
전 KB투자증권 사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공약은 자산운용사의 독립성 강화다. 이는 선거에서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증권사에 비해 자산운용사의 이해(利害)가 다소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투협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자는 총 4명이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과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 정희동 전 KB투자증권 사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출마표를 던졌다.

권 사장을 제외한 3명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산운용사의 독립성 강화다. 현재 손복조 회장은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 업권별 협회를 모두 분리하겠다고 안을 내놨다. 황 전 사장은 자산운용사만 분리, 정 전 사장은 업권별 부문 대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에 따르면 권 사장 역시 자산운용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회장 '캐스팅보트'
올해 유독 금투협회장 선거에 자산운용사 독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 자산운용사 표가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금투협회장 투표 시 회원사들은 모두 1사 1표를 제공한다. 이 표가 의결권의 40%를 차지한다. 나머지 60%는 회원사별 협회비 분담 비율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진 금투협 정회원사(241개 사) 중 자산운용사(169개 사)의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지난 2015년 자산운용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전 선거 때보다 약 80곳이 늘었다. 지금까지는 협회비 분담금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들의 표가 중요했지만 자산운용사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된 것이다.

또 글로벌 증시 호조와 국내 공모 펀드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산운용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모펀드에 비해 침체돼 있던 공모펀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최근 6개월에만 국내주식형 펀드로 자금은 4조4274억원 유입됐고, 국내에서 운용하는 해외주식형 펀드 규모도 2조5101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공간이 두둑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타산(打算)
이러한 상황 속에 자산운용사의 불멘 소리가 나온다. 바로 수수료 문제다. 또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좌) 상품 활성화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 자칫 판매 창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권 분리 공약을 내놓은 손복조 회장은 "판매사인 증권사는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길 원하고, 자산운용사는 실제 수익

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길 원한다"며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 역시 "증권사들은 판매 수수료를 놓기 싫어한다. 판매 창구가 1~2%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한 협회로 묶어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다. 물론 완전 분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자 운영돼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업권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상생해야 하는 관계이고, 자산운용사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라는 큰 협회에 속해있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업권 분리의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자본시장법 284조에는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업권 분리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회장 공모 기간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해 25일로 예정된 회원총회에서 241개 정회원사의 투표로 협회장을 선출한다. /손영미 기자 sonumji301@metrosecoul.co.kr

몸집 키우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올해 정규직 400명 채용

신입·경력 상시채용... 사업 다각화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올해 신입과 경력으로 최대 4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정보기술(IT)과 웹디자인, 핀테크, 마케팅, 홍보, 해외영업, 인사, 금융투자, 법무 등 본사 부서 전체와 콜센터다. 모두 정규직이다.

본사 채용 인원은 36개 부서에 100명이다. 안정적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 인프라, 보안, 고객자산보호 관련 부문의 인원을 대폭 충원한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금융 부문의 금융투자 전문가, 해외사업 전략가 등 신설 부서 인원으로 채용한다.

콜센터 상담원은 300명 뽑는다. 기존 콜센터 상담원 230명은 올해부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채용 일정은 신입과 경력 모두 상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야근수당과 추가 근로수당, 스톡옵션, 성과급은 물론 하루 세끼 식비,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한방 및 마사지 서비스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채용 규모는 빗썸의 전체 직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빗썸에는 현재 본사 220명과 콜센터 230명 등 총 4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수용 빗썸 대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신규사업 확장에 따른 신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로 했다"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엔진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핀테크 산업을 모범 거래소인 빗썸이 앞장서 이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대출 규제에도... 지난해 주담대 15조 증가

(주택담보대출)

주요 시중은행 총 잔액 377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새 오히려 15조원 이상 늘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은 377조7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2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362조7093억원보다 15조879억원 늘어난 수치다.

2016년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1조9349억원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춤하기는 했지만, 대출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개인신용대출도 7조원 이상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7조36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186억원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조이가 시작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4조8397억원이 늘었다.

이는 8·2 부동산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막히면서 잔금을 마련할 방법

을 찾던 주택 구매자들이 신용대출을 택한 탓에 발생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개인신용대출은 통상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지만, 정부의 LTV 규제 강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8조3079억원까지 치솟았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줄곧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총 잔액은 지난해 말 201조263억원으로 1년 사이에 21조8022억원이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실상 개인 대출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돼 역시 LTV와 DTI 규제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올해 시행 예정인 신(新) DTI와 DSR(총체적상환능력사제)에 쏠린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한층 어려워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호 기자 kmh@

LH, 전국에 드론 띄운다... 年 250억 신규시장 창출

215개 사업지구 업무에 활용

이르면 오는 2월부터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이로 인해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원이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215개 사업지구(389㎢, 238조원 규모)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해 드론 활용을 검증해왔다. LH는 국산기술로 제작된 드론 25기를 도입, 일정 면적(약 30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와 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의 사업지구에서는 외주 용역을 통해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드론으로 취득된 공간·공사정보의 처리·가공·활용을 위해 LH는 세계 최초의 원스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LH 사

업지구 내 비행하는 모든 드론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통제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상관제장비(내비게이션, 경로추적, 스마트폰뷰 등)를 통해 비행하게 된다.

전국 LH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하는 경우 연간 약 2500여회의 비행소요가 예측되며, 연간 약 250억 원의 신규 드론시장(시공:154억, 자산관리:50억, 계획:12억 등)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기존 연 130억원이 소요되는 항공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은 절반 수준(1억 8000만→8000만원, 1㎢ 기준)으로 줄어 들어 연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무술년 첫 파생결합상품 2종 모집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5일까지 2018년 무술년 첫 번째 파생결합상품 2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연 4.3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7924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1차), 90% 이상(2차), 85% 이상(3~4차), 80% 이상(5차), 65% 이상(만기)이다. 녹인은 없다.

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 5.0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7925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1차), 90% 이상(2차), 85% 이상(3~4차), 80% 이상(5차), 65% 이상(만기)이다. 녹인은 없다.



모집은 각 30억원 한도로, 상품가입은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삼성자산운용

로보어드바이저 본격 시동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일 조직개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솔루션 본부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으로 코덱스(KODEX) ETF 운용 능력과 핀테크 기술 시너지를 도모하고 로보어드바이저 등 ETF 자산관리 사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특정금전신탁가입 시 투자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로보어드바이저의 대중화를 위해선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이 필요하다.

삼성자산운용은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KODEX 로보솔루션 1호'를 앞세워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 상용화 준비를 마쳤으며, 로보어드바이저 규제가 완화해 비대면 일임 서비스가 허용되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가전 유통의 혁신... 온·오프 결합매장 '옴니스토어' 첫 선

하이마트

온라인 검색해 오프라인 결제 등 채워지지 못한 소비 욕구 충족 휴식 공간·카페 이용도 자유로워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가전유통업계 최초로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을 연다. 그 동안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상품들을 매장 내 비치한 태블릿으로 직접 검색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옴니존'을 운영해왔지만 매장 자체를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으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하이마트는 하이마트 구리역점을 전면 새단장하고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 '옴니스토어'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옴니스토어는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는 고객에게 또 하나의 구매 채널로 작용한다. 오프라인에서 채워지지 못한 소비 욕구를 온라인으로 충족시키는 셈이다.



롯데하이마트가 오는 5일 하이마트 구리역점을 전면 새단장하고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 '옴니스토어'를 오픈한다.



/롯데하이마트

옴니스토어는 1층 중앙에 비치된 태블릿을 이용하면 된다. 태블릿에 설치된 전용 앱을 실행하면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제품들을 포함해 8만 여개의 가전제품들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한 제품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도 가능하다. 결제하면 주문 번호가 생성되고 주문 번호가 계산대 안내 화면에 뜨면 제품을 바로 가져 갈 수 있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옴니스토어에 독

서, 휴식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다른 매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옴니존에서 구매한 상품이 준비되는 동안 책과 커피를 즐기며 기다릴 수 있고 가전 제품 구매와 상관 없이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매장 곳곳에는 휴식 공간이 마련됐으며 매장 전체 조명을 은은하게 바꾸고 인테리어도 나무 소재를 주로 사용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외에도 가전 제품 진열대 곳곳에 관련 서적을 비치해 단순한 가전 매장을 넘어선 '라이프스타일 매장'의 모습을 갖췄다.

믹서기, 토스트기 등 주방가전 옆에 요리책을 꽂아 놓거나 다리미, 청소기 등 생활가전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서적, 수납 아이디어 서적 등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매장 내에 진열된 책들은 모두 읽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

김현철 롯데하이마트 상품본부장은 "점점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전매장의 장점을 모은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롯데하이마트는 구리역점을 시작으로 '옴니스토어'를 점차 확대해 소비자들이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화장품 하나만으로 홈쇼핑 1300억 판매

AGE 20's의 '에센스 커버팩트' 신규+기존 소비자 재구매 잇따라

생활뷰티기업 애경은 기능성화장품 브랜드 AGE 20's(에이지투웨니스)의 대표 인기제품 '에센스 커버팩트'가 홈쇼핑에서 지난해 1300억원의 판매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는 지난해 홈쇼핑에서 연간 199만 세트, 1390억원의 판매를 기록하며 연간 판매 기록을 새롭게 갱신했다.

2016년에 연간 판매액 126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간 1000억 제품에 오른 것에 이어 2017년에도 약 10% 성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138회 홈쇼핑 방송이 진행, 1회당 10억원의 평균 판매액을 기록하며 평균 판매액도 2016년 대비 17% 증가했다. GS샵,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등 주요 홈쇼핑의 '2017년 10대 히트상품'에도 이름을 올렸다.

애경측은 AGE 20's 에센스 커버팩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 TX. /애경산업

트의 인기 요인으로 '제품력'을 꼽았다. '에센스 포켓기술'로 고체 파운데이션 안에 수분에센스가 68% 함유된 차별화된 제형으로 촉촉함과 커버력을 모두 갖춘 탄탄한 제품력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최근에 '에센스 커버팩트' 론칭 4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시즌9 '에센스 커버팩트 TX(TENSION EXTREM

E)'는 수분에센스의 함량을 70%까지 끌어올려 건조한 동절기에 피부를 촉촉하게 할 수 있도록 보습력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생팩트', '모녀팩트', '완판팩트' 등 수많은 애칭을 얻으며 '에센스 팩트'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탄생시켰다.

최근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의 '부메랑팩트'라는 애칭을 추가하며 신규 구매자의 유입은 물론 기존 소비자의 재구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2018년 1월 1일 새해 첫 홈쇼핑 방송부터 매진을 기록하며 한해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며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가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업그레이드된 에센스 커버팩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는 홈쇼핑에서 현재까지 530만 세트, 3700억원의 누적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현대백화점 '폼데가르송 블랙 x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라인 선배 3일 오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점 폼데가르송 블랙 매장에서 직원들이 나이키와 협업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상품으로는 '자켓', '티셔츠', '스니커즈' 등이다. /현대백화점

푸르밀, 오너경영으로... 신동환 대표이사 선임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오너경영체제로 전환했다.

푸르밀은 신동환 부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신 대표이사는 신경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의 차남이다.

신 대표는 1970년 12월생으로 1998년 롯데제과에 입사해 2008년 롯데우유 영남 지역 담당 이사를 역임한 뒤 2016년 2월 푸르밀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에는 기능성 발효유 '엔원(N-1)' 출시와 유제품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었다.

한편 푸르밀은 1978년 롯데우유업으로 출



/박인용 기자 parku7854@

발해 2007년 3월까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햄·롯데우유로서 '비피더스', '검은공이 들어있는 우유', '푸르밀 가나초코 우유' 등을 히트시키며 유가공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2007년 4월에는 롯데그룹에서 분사했고, 2009년에 사명을 롯데우유에서 푸르밀로 교체했다. 2017년에는 면역을 생각한 기능성 발효유 '엔원'과 리얼브루, 바나나키우유 등을 출시하며 유가공 시장 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유아동업계, 올해 키워드는 '플라시보 맘'

만족 추구하는 '플라시보 소비' 친환경 제품 찾는 소비자 늘어

아가방앤컴퍼니는 올해 유아동업계 키워드로 '플라시보 맘(Placebo-mom)'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플라시보 소비(가심비)'이 떠오르고 있어서다.

플라시보는 파스텔톤 보라색(Pastel violet), 로하스(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애슬릿 룩(Athlete look), 큐레이션 쇼핑(Curation), 감성소비(Emotional consumption), 국경 없는(Borderless), 온라인 채널 강화(Online First)의 첫 머리글자로 만든 신조어다.

먼저 올해 성인패션에 이어 유아동복에서도 은은한 '파스텔톤 보라색' 컬러를 사용한 다양한 유아동복, 액세서리류 등이 출시되어 트렌디한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지향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특히 유아동복, 기저귀 등에서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거나 최소화한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부터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의 영향으로 유아동복도 활동성을 강조한 '애슬릿 룩'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속 넘쳐나는 정보에 지친 소비자에게 맞춤형 쇼핑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쇼핑이 유아동업계에도 급부상할 전망이다.

상품을 구매하면서 느끼는 감성과 경험의 중요해졌기 때문에 유아동업계에서도 소비자와의 정서적 소통을 위해 SNS 등 감성마케팅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기존 오프라인 영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대형 유아동업체들도 온라인 쇼핑 앱을 출시하고 전용 쇼핑몰을 오픈하는 등 온라인 채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국 아가방앤컴퍼니 대표이사는 "올해는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플라시보' 마케팅이 유아동시장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상품개발단계부터 유통-마케팅까지 전 영역에서 실질적 소비자인 엄마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전망했다. /박인용 기자

투썸플레이스 '퍼피 텀블러' 등 MD 신제품 6종 선보

투썸플레이스가 2018 무술년을 맞아 '황금 개의 해'를 상징하는 '퍼피 텀블러' 등 MD 신제품 6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투썸플레이스 무술년 MD제품은 '강아지' 얼굴을 주제로 한 귀엽고 섬세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에 투썸 MD 마니아와 반려동물을 가족



처럼 소중히 여기는 '펫팹족'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썸 퍼피 텀블러'는 강아지 얼굴 이미지를 텀블러 마개에 입힌 제품이다. 세라믹 재질의 220ml 용량 텀블러로 보온력이 우수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투썸 스페셜 머그잔'은 양쪽 귀를 세우고 있는 강아지를 연상케 해 음료를 마시는 기능 외에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도가 높다. 스마트폰 뒤에 부착해 거치대로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화면 터치,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한 '투썸 그림판'도 함께 출시했다. /박인용 기자

“계약·바이오, 4차 산업혁명 주도”... 글로벌 성장 원년

계약업계 올해 경영전략

경영슬로건 정하고 사명 변경도 키워드는 ‘글로벌·혁신·도약’

새해를 맞아 계약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쏟아냈다.

3일 계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계약사들은 사무실을 통해 올해를 글로벌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또한 계약·바이오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올해의 경영슬로건을 ‘새로운 도전, 새 가치 창조’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 사유, 실행을 실천 지표로 삼아 인재 양성, 창의적 사고, 즉시 행동하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였던 어려운 난관들을 뜨거운 도전정신으로 극복하고 회사의 목표를 향해 쉬 없이 달려와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개발’, ‘창의’, ‘행동’이며, 우리 회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남다른 창의력과 앞선 행동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허은철 녹십자 사장



임성기 한미약품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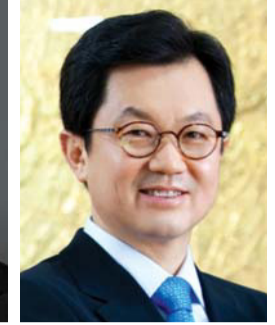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이경하 JW중외그룹 회장

녹십자는 지주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사명을 GC로 변경했다. 회사 측은 녹십자(Green Cross)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것으로 위대한 헌신과 도전을 통해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허일섭 GC 회장은 “새로운 CI에는 근본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도약하는 내일의 우리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역동적인 상호리더십 등을 통해 100년 기업을 향한 위대한 스토리를 써 내려 가자”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슬로건은 ‘계약강국을 위한 한미 혁신경영’이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2018년 새해 경영슬로건은 ‘계약강국을 위한 한미 혁신경영’”이라며 “한미의 창조와 혁신, 도전은 대한민국의 계약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혁신은 한미의 핵심 DNA”라고 말했다.

다. 이어 “혁신 없이는 창조와 도전은 물론 생존과 미래도 없다”며 “신약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임상이행연구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경영이 한미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제4차 산업혁명은 제약과 바이오 산업을 접목할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며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직원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2018년 경영방침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객신뢰 향상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의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대웅제약은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2018년 매출 1조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고객과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령제약그룹은 지난 60년의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올해를 ‘100년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았다.

김은선 회장은 “2018년은 ‘100년 보령’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나를 넘어 ‘우리’가 되어 각 사가 정한 목표를 이루고, 수익 중심의 내실경영과 함께 조직과 인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JW중외제약은 올해 경영방침을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 JW ; 지속적 성과’로 확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 ▲수평적 소통 ▲일사불란한 실행을 제시했다. 새해 경영방침은 ‘스마트 JW’의 2단계로, 지난해 재정립한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인 ‘JW Way’를 기반으로 ‘소통’과 ‘실행’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업적과 성과, 사회적 기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경하 회장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의 본질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동제약그룹은 올해 경영지표를 ‘고객가치 중심의 혁신과 도약’으로 수립했다. 경영방침으로 ▲품질 최우선 ▲계획대로 실행 ▲경영효율성 증대 등을 설정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시민기획 공모

서울 시민이 ‘한강몽땅 여름축제’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18 한강몽땅 시민 기획 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한강몽땅을 시민 주도형 축제로 만들기 위한 공모를 3일 시작했다.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올해 공모 과정은 ‘한강에서의 여름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시원한강(수상·도전) ▲감동한강(문화·예술) ▲함께한강(자연·휴식) ▲특별한강(공원 특화)까지 4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공연·전시·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면 된다. 주제를 복합적으로 접목할 수도 있다. 시민이 제안한 기획안이 사업으로 선정되면 각 사업규모에 따라 500만원~3000만원을 차등 지원 받아 축제에서 실현할 수 있다.

지원된 사업비로는 행사 추진에 필요



2017년 한강몽땅 시민 기획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단디우화’.

한 공연비와 운영비, 홍보, 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기용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천만 시민들의 피서지 한강이 올해도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시민들의 축제로 기획하고자 이번 공모를 준비했다”며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시민들의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지난해 가장 깨끗했던 자치구는 ‘송파구’

서울시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수질·대기 배출업소 점검 등 평가

지난해 환경관리를 가장 잘 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송파구가 최우수, 성동구와 서초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관리 ▲환경 위업 업무 관리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수질·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 적발률,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공무원 인력운영 등이 우수한 송파구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체 총 환경오염물질(수질·대기) 배출업소 점검대상 2734개소 중 2942개소를 점검해 점검률 107.6%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위반사업장은 289개소로 점검업소 대비 9.8%의 실적을 보였다.

또한 매년 자치구를 평가해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률, 위반 적발률 등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2개 항목 모두 ‘가’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올해도 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과 소통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투명한 환경행정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우리 구청 소식

주민이 직접 들려주는 ‘우리동네 소식’

마포구,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안녕하세요 핑크쟁이예요 뽕장 언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손주가 아파서 고생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 감기가 심해서 마음 아팠어요” 마포구 지역 주민이 동네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마포구는 성산2동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톡톡성산2, 거침없는 수다’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성산2동을 대표하는 전·현직 통장들이 만들고 있다. 평소

알지 못했던 동네소식을 입담 좋은 주민들을 통해 듣기 때문에 신선함과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이들은 라디오 제작을 위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5주간 전문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송덕호 방송본부장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톡톡성산2, 거침없는 수다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마포FM 100.7MHz에서 들을 수 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되고 1·2부로 나뉜다. 1부는 성산2동 주민들에게 새로운 동네소식을 전하는 ‘성산2동의 이모저모’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초대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지금 만나고 싶어요’ 코너가 열린다.

/이범중 기자



종로한복축제 ‘문화관광육성축제’ 선정

종로구가 밝혔다. 문체부는 우수한 지역 축제를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육성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은 광역 지자체별 심위원회를 열고 후보를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와 최우수, 우수, 유망, 육성축제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서울 종로한복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8년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우수한 지역 축제를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육성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은 광역 지자체별 심위원회를 열고 후보를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와 최우수, 우수, 유망, 육성축제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범중 기자



노원구립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 노원구립여성합창단이 2018년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와 인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각 0명이다. 응모 자격은 노원구 거주 25세 이상 50세 이하 여성이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24일, 구청 누리집 ‘인터넷 모집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진(3.5×4.5) 2매, 응시곡 악보 사본 3부, 자필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준비해 심사당일 제출하면 된다.

/이범중 기자

G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가성비 높은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70개국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어려움 해결 총력

소진공 '혁신형 일자리' 창출 비전 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도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3일 대전에 위치한 본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성장과 활력으로 서민경제의 내일을 여는 희망·행복의 동반자로 나아간다'는 공단 비전을 선포했다.

아울러 공단의 5대 핵심가치인 ▲변화와 혁신 ▲도전 ▲협력 ▲상생 ▲고객현장을 담은 슬로건 '열정 +5°C! 국민경제의 내일을 봅시다'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찾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왔다"며 "이제 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가운데)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3일 공단 본부에서 가진 비전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로운 미션과 비전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선 김 이사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박정원 서울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경기 수원 못골시장 '쭈마불평합창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포츠용구조합,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부금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평창조직위원회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스포츠 관련 중소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권오성 스포츠용구협동조합 이사장(왼쪽)이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

현대차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 후원

현대자동차가 한중 대표 바둑기사의 대결로 주목받는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을 공식 후원한다.

현대차는 13일 해비치 호텔 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열리는 이 대회를 후원하고, 대회 우승자에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코나'를 증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세돌 9단이 승리할 경우 국내에서 '코나'를, 커제 9단이 승리할 경우 중국 현지에서 중국형 모델 '엔시노'를 선물한다. 아울러 현대차는 대회 현장에 올해 첫 신차, 신형 벨로스터(위장 랩핑카)를 전시하고 개막식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현대차는 '신형 벨로스터'에 적용될 신기술 '사운드하운드(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응원 이벤트'에서 선정된 응원 메시지와 음악을 개막식 현장에서 이세돌 9단과 커제 9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공지능 알고고와 멋진 대결을 펼친 세기의 스타 바둑기사가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후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우정사업본부, 소형 전기차 50대 3월 시범운영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올해 도입될 예정인 초소형 사륜전기차 등 우편차량이 지난 2일 광화문에서 희망과 행복을 배달하며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했다.

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택배 업무에 이같은 소형 전기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집배원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는 과거의 우편 배달을 위한 운송수단이다. 현재 택배 위주의 운송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1

월 "드론과 전기차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인용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면 집배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택배량도 늘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특히 냉난방 장치도 있어 집배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

우분은 3월부터 50대의 전기차를 주요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우분 관계자는 "지역별 우정청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고 희망 우체국 위주로 전기차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편차량 거리 퍼레이드. /우정사업본부

시범운영 하는 전기차 도입은 구입이 아닌 리스(임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신점[神占] 운세 1월 4일(음 11월 1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48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하세요. 60년생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72년생 뜻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4년생 벌이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소** 49년생 소원도 풀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61년생 만사가 팍 막혀 있습니다. 73년생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85년생 이상형의 상대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호랑이** 50년생 문제가 하나씩 해결 됩니다. 62년생 어려운 시기는 무사히 잘 넘겼으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4년생 큰일에 몰두하세요. 86년생 애정운이 좋아 기쁜 하루가 됩니다.
- 토끼** 51년생 여행을 하면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63년생 낙천적인 성격에 술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75년생 풀리지 않던 일도 풀리는 좋은 시기입니다. 87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 원숭이** 52년생 신의를 저버리면 큰 해를 당합니다. 64년생 경솔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76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88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 뱀** 53년생 결실이 만족적 못합니다. 65년생 위험을 슬기롭게 이겨 낼 수 있습니다. 77년생 능력을 심분 발휘해 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89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맺어지겠습니다.

- 말** 54년생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66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78년생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90년생 주변 어느 곳에 가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양** 55년생 금전상 약간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67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79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91년생 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 원숭이** 56년생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6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0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습니다. 92년생 지출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 닭** 57년생 너무 잘해주는 이들을 주의하세요. 69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81년생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93년생 점차적으로 원하던 뜻을 이루게 됩니다.
- 개** 58년생 부지런히 뛰어나면 이득이 옵니다. 70년생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82년생 모든 것이 막혀있습니다. 94년생 추진중인 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돼지** 59년생 세상이 귀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71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83년생 시기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5년생 여행을 떠나 기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상희의四季

인생의 好雨時節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 우연히 호우시절이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다. 호우시절(好雨時節)이라는 말은 당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두보(杜甫)가 '춘야희우(春夜喜雨)'라는 시의 첫 구절인 '호우지시절(好雨知時節)'에서 따 온 것이다. 때를 알고 내리는 좋은 비.. 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인가? 같은 비라도 그치기를 바라는 흥수 때의 비가 아닌 필요할 때 내려주는 좋은 비 바로 서우(瑞雨)인 것이니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고마운 은혜로운 비인 것이다. 두보가 난리를 피해 잠시 성도에 머무르던 곳을 '두보초당'이라 했고 그곳에서 그는 농사를 지으며 지냈다 한다. 지난겨울이 가뭄에 걱정하던 와중에 밤사이 내린 봄비에 따른 땅들이 해갈을 하니 초목은 윤택하여지고 마음 역시 반가움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오름을 이렇게 잔잔하나 정겹게 묘사한 것이다.

사주 학의 입장에서 인생의 호우시절이란 대운(大運)이 좋게 펼쳐나가는 시기이다. 인생의 좋은 계절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 살아가는 와중에 나를 도와주는 희신(希神)이나 좋은 신 살로 작용하는 오행의 도움이 있는 때를 인생의 호우시절이라 말한다. 뜻하지 않던 제도의 변경이나 법의 제정 등으로 걱정스러운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마른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일들이니 마치 두보가 읊은 춘야희우와 같은 일들이 아니겠는가?

자연이야 천지기운의 이치가 있어 이에 한 치도 벗어남이 없다 하거늘 인생사에 있어 호우시절을 만드는 이치는 선업(善業) 외에 답이 없다. 모든 악함을 짓지 말고 여러 선함을 받들어 행하라는 '제약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衆善奉行)'의 이치 말이다. 아직 봄비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두보의 춘야희우(春夜喜雨)를 마음에 읊어본다. 나름 선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인생의 호우시절을 이미 지나친 사람들은 물론 아직 오지 않은 호우시절을 맞이할 사람들을 위해..그러나 매일 매일이 우리 인생의 호우시절이기를 역시 기대하며.. "호우지시절 당춘내발생 수풍잡입야 윤물세무성(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 隨風潛入夜 潤物細無聲) 야경운구흑 강선화독명 효간홍습처 화중금관성(野徑雲俱黑 江船火明曉 看紅濕處 花重錦官城)" 풀어 보면 이렇다. "단비는 시절을 알아차려 봄이 되니 내리네. 바람 따라 살그머니 밤에 들어와 만물을 적시되 가늘어 소리도 없구나.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 위에 뜬 배만 불빛 비치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1				5	
		9		5	
	9		7		8
		2	9	4	
	7				2
3		8		7	
1	2	3		9	6
		4		1	
	6				1

4					
	9	8			4
	5	7		3	
			1	4	8
			7		6
			3		9
	2	9		1	
	8	6			9
1					

스도쿠 정답

8	1	2	5	7	9	6		
2	6	5	1	9	7	8	3	4
7	9	6	8	3	2	5	1	
6	9	7	4	1	8	5	2	3
1	8	2	9	5	3	6	7	4
5	4	1	7	6	2	1	8	9
9	2	8	5	4	1	6	7	3
3	7	1	5	2	6	9	4	8
4	5	6	8	7	9	1	2	3
2	8	5	9	6	7	4	1	3
1	2	6	7	5	9	8	3	4
9	7	4	1	8	6	2	5	3
7	9	4	6	2	5	1	8	3
5	4	1	9	8	7	2	3	6
6	2	8	7	5	1	9	4	3
8	6	2	1	4	7	3	5	9
4	1	7	5	2	9	8	6	3
4	5	9	8	6	2	1	3	7

문제 제공= 보너스

배우고 수시로 익혀야 살아남는다



윤위중의
잠시 심포

메트로신문 근처에는 친절한 서비스와 집밥 같은 맛으로 이름 난 음식점이 있다. 이 곳은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하면 자리를 잡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이 음식점에 손님이 뜸하다고 한다. 이 음식점을 자주 찾다가 최근 발길을 끊은 한 손님은 “메뉴가 몇년째 똑같아 이제는 질린다”며 그 음식점에 가지 않은 이유를 들려줬다.

그리고보니 근처 빵집이나 음식점들 가운데 메뉴 개발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보였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로 개발된 메뉴가 없다. TV에서는 지상파는 종편이든 케이블이든 서로 ‘떡방 경쟁’을 하며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하며 맛을 찾아 다닐 것을 부추기고 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최고 수준에 올랐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맛집을 찾아다니는 취미를 붙이고 있다. 이처럼 소비 트렌드는 변덕이 심한데 신메뉴 개발은 하지 않고 한 두 메뉴만으로 몇년째 장사하는 걸 보면 우직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변화를

나몰라라 하는 강심장 같기도 하다.

돈금 없이 동네 음식점 애기를 꺼낸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변화에 대한 체감온도’가 너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물론 대기업보다 더 변화와 혁신을 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의 생계가 벅차 내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아 더 민첩하게 변할 법도 한데 조직이나 자금의 여유가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반면, 대기업들의 변화 속도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다. 새해 초부터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재계를 리드하는 기업체 수장들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의 신년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의아할 정도다. LG의 구본준 부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으며 최대원 SK 회장은 “중진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SK의 원년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자동차 판매목표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낮게 잡으면서 책임경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여건이 어려운 걸 알고 구성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대기업들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변화에 대한 체감이 이렇게 다르다보니 둘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대기업들은 전세계 모든 기업들을 경쟁상대로 삼아 개념조차 모호한 4차 산업혁명의 그림을 스스로 그려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데다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을 끌어 쓰기도 쉽지 않다. 부익부빈익빈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만 타하면 사업 실패의 변명은 될 지언정,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알을 낳 정도와 고통과 좌절을 단행하지 않으면 변화의 단초를 잡을 수 없다. 공자는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걸 현대 경영에 접목해보면 ‘신기술이나 첨단 경영 기법을 배우고 수시로 실행해야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서 기쁘지 않겠나’로 해석할 수 있다. 살아남으려면 기업 규모를 떠나 수시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우리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기탁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열고 이웃돕기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이 이웃돕기 성금 10억원을 기탁한 뒤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새해맞이 강원지역 격려 방문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 김도진 은행장(네번째)이 새해 첫 일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강원지역 영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행장은 새로 개통된 경강선 KTX를 타고 강릉까지 이동해 강릉지점 직원들과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떡국을 나눠 먹었다. 이어 속초, 동해 지점을 차례로 방문해 격려에서 근무하는 영업점 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IBK기업은행

새해 물가 잡아야



기자 수첩
박인웅
(유통&라이프부)

새해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원재료 값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결과다. 자칫 물가상승과 일자리 문제 등 악재가 겹칠까 걱정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근로자의 임금만 오른게 아니다. 프랜차이즈, 화장품 등 유통업계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느정도의 후유증은 예견됐지만 그 규모와 크기가 더욱

커질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되는건 사실이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KFC가 치킨과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늘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도 주요 메뉴 가격을 5.3~14% 인상했다. 죽 이야기는 주요 제품의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올렸다.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들이 가격을 올린 이유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악재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에서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 폐업하는 매장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미 중소 매장들은 점원 줄이기에 나섰으며, 외식업계에는 키오스크(무인주문

자판기)를 선보이고 있다. 편의점도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곳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청년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국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나 서비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arkiu7854@



오토닉스, 일자리 창출로 대통령 표창 오토닉스는 지난 2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개최된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오토닉스는 최근 3년간 신규 고용을 약 25.9% 가까이 늘렸다. 장애인 고용 비율 약 50%, 청년층 고용 비율 약 52%, 여성 비율 약 35% 증가 등 노동 비율도 고르게 형성했다. 전체 인력의 98%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힘써왔다. 오토닉스 박용진 대표(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토닉스

휴롬 착즙기, 호주 소비자단체 우수제품 선정

휴롬은 지난해 출시한 ‘휴롬원더’가 호주 소비자 단체인 ‘더초이스’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호주 더초이스는 1959년 호주 시드니 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결성한 비영리 소비자제품 평가 단체로 온라인과 매거진을 통해 제품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정기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인구의 70%가 이 단체의 평가 결과를 제품을 구매할 정도로 높은 신뢰를 자랑한다.

휴롬원더는 착즙력, 주스품질, 편의

성, 브랜드 만족도를 비롯한 더초이스의 42개 평가 기준 대부분을 최상위 등급으로 충족시켜 ‘꼭 사야 할 제품’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평가 기준에는 오렌지주스, 사과주스, 당근주스, 그린주스 등 주스 종류별로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 칼슘 등 영양소 보존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휴롬원더는 작년 호주 명문 백화점 데이비드존스 백화점 62개 매장에 입점해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임현재 기자 ihj@

인사

- ◆KB캐피탈 ◇신규 선임 △기업금융본부장 전무 정상철
- ◆뉴스투데이 ◇인사발령 △부사장 정성환
- ◆안랩 ◇신규 선임 △CTO(최고기술책임자) 이호웅 상무 ◇부사장 승진 △강석근 EP사업부장(前 전무) ◇상무보 승진 △한창규 시큐리티대응센터장 △김석중 NW영업본부장 △이상국 EP사업기획실장
- ◆한국화이자제약 ◇이사 △정보전략부 조종행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문 영업팀 이웅구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문 허가팀 전유원 △내과질환 사업부문 의학부 이신원 △내과질환 사업부문 영업팀 이성호 △항암제 사업부문 의학부 이지선 △에센셜 헬스 사업부문 영업팀 고병찬 △에센셜 헬스 사업부문 영업팀 이동수 △회귀질환 사업부문 의학부 이한이 △백신 사업부문

- 영업팀 민병선 △백신 사업부문 영업팀 이상기
- ◆대한해운 ◇승진 △상무 임근목 김병록 △이사 이동정 △이사대우 민태운 △부장 김태희 유정근 이형석 △차장 한정현 전원규 홍석용 최희대 박종철 배원호
- ◆퍼시그림 ◇퍼시그림 승진 △부사장 윤기연 △상무 이사 안창기 △상무이사 박정희 ○일몰 승진 △부사장 강성문 ○바로스 승진 △사장 박광호
- ◆GC녹십자 ◇전무 △마케팅본부 본부장 남궁현
- ◆조아제약 ◇이사 △품질관리부 신춘식 △생산부 이경진 △부산영업소 이정용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김정옥 ○과장직위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장 우만수
- ◆한국무역협회 ◇상무 승진 △경영관리본부장 김정수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안근배 △국제무역연구원 실장
- ◆서울대 ◇학장·원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이봉주 △의과대학 학장 및 의학대학원 원장 신찬수 △스포츠진흥원 원장 김선진 △부학장·부원장 △인문대학 기획부 학장 정병설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신병식 △사회과학대학 학생부학장 주병기 △사회과학대학 기획부학장 박정재 △자연과학대학 기획부학장 장원철 △간호대학 교무부학장 정재원 △간호대학 학생부학장 이남주 △공과대학 연구부학장 남경필 △공과대학 기획부학장 이광근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부학장 장

- 판식 △미술대학 교무부학장 김수정 △미술대학 학생부학장 허보운 △사범대학 기획부학장 박동열 △생활과학대학 교무부학장 권영애 △생활과학대학 학생부학장 추호정 △수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김용백 △수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이인형 △음양대학 교무부학장 이신우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및 의학대학원 교무부원장 김종일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및 의학대학원 학생부원장 박경은 △의과대학 연구부학장 이재영 △의과대학 기획부학장 강현재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장 이상민 △보건대학원 교무부원장 이태진 △행정대학원 교무부원장 정광호 △행정대학원 학생부원장 우지숙 △환경대학원 교무부원장 김경민 △환경대학원 학생부원장 홍중호 △국제대학원 교무부원장 안덕근 △국제대학원 학생부원장 송지연 △치의학대학원 연구부원장 한승현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무부원장 이교구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생부원장 박노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무부원장 김주근 △국제농업기술대학원 학생부원장 최인규 △스포츠진흥원 부원장 박일혁 △전보 △시흥캠퍼스추진지원본부 행정지원팀장 김영식 △충무과장 김완중 △캠퍼스관리과장 김기업 △감사팀장 정대원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장 주성희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장 홍순영 △한경대학원 행정실장 나호상 △법학도서관 김미향 △그린바이오과학 기술연구원 행정실장 서정훈 ◇승진 △국제협력과장 송인용 △총장실 강형석 △감사팀 박태용 △총무과 주용식 △

- 평생교육원 신승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박숙희 △농업생명과학대학 서준수 △의과대학 정국선 △전보·승진 △미술대학 행정실장 강병영 △수의대 행정실장 황희영 △행정대학원 행정실장 백승숙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권정일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김화택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정노욱
-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정연

부음

- ▲김명환씨 별세, 김사소(전자신문 기자)·시우(ECM특허법률사무소 대표)씨 부친상 = 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4호, 발인 5일 오전 9시, 02-2072-2020
- ▲김갑이씨 별세, 이성진(코스콤 전자인증사업부 차

- 장)·성욱(공군 중령)·미숙(개금여자중학교 교사)·은숙씨 모친상, 차갑성(성정비나 대표)·박상균(여부공학 대표)씨 장모상, 최세경(안양시청 주무관)·고영경씨 시모상 = 2일 오후 4시 8분, 김해전문장례식장 2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055-337-3946
- ▲정승자씨 별세, 문희갑(전 대구시청) 부인상, 지영·지강·지원씨 모친상, 이명용(단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김태웅(오기너 브릿지 대표이사)·권영준(시즈스 파트너스 대표이사)씨 장모상 = 3일 오전 5시,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6일 오전 8시, 053-250-8145
- ▲이상목씨 별세, 이준희(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광희·성원(SK이노베이션 근무)씨 부친상 = 3일 오전, 울산중앙병원 장례식장 로얄실, 발인 5일 오전 8시, 010-5410-705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규
편집국장 이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대작·대선배·수화 부담감 이겨내고 명장면 연기”

스타인터뷰 영화 ‘신과 함께’ 김동욱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 이하 신과 함께) 열풍이 전국을 들쭉이게 하고 있다. ‘천만 영화’ 입성까지도 머지 않은 가운데, 작품 속 의외의 수화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이는 바로 배우 김동욱이다. 극중 주인공 자홍(차태현 분)의 동생 수홍 역으로 등장한 그는 영화 속 강렬한 ‘한 방’을 남기면서 관객들의 호평을 휩쓸어갔다.

최근 인터뷰를 위해 메트로신문과 만난 김동욱은 이 같은 호평 세례에 얼떨떨한 모습이었다. 그는 “(차)태현이 형이 앞에서 드라마를 잘 쌓아놓았다. 저는 그 덕을 본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김동욱이 극중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초반부를 넘어서부터다. 생전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저승에서 ‘귀인’ 대접을 받는 형 자홍과 달리,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원귀’가 되고 만다.

김동욱은 “찍으면서 끝날 때까지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부담이 엄청 컸던 것도 사실이다. 대작인데 다 쟁쟁한 대선배들과 함께 했고, 1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돼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묵직한 부담감을 이겨내기까지 숱한 고민이 이어졌다. 그 결과, 김동욱은 ‘신과 함께’의 클라이막스로 꼽히는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극중 수홍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수화를 사용하는데, 이 장면을 위해 김동욱은 수화를 배우고 디테일을 살리고

CG로 7개 지옥 실감나게 묘사
차태현 동생 ‘수홍’역으로 호평
SF 장르 좋아해 촬영 즐거워
‘수화 연기’ 고민에 잠 못이뤄

자 고군분투 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수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들었다. 그걸 같이 해야 하니까 그 장면에 대한 부담도 굉장하 컸다”며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공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촬영 일주일 전부터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회상했다.

“영화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화 선생님과 연습했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집에서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감독님과도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다보니 나중엔 꿈에 나올 정도였죠.”

압박감을 이겨내고 완성한 장면은 배우 김동욱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했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드라마 ‘커피프린스’, 영화 ‘국가대표’ 등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영화 ‘국가대표’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감독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영화라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이기에, 출연 제안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 생각이죠. 그래서 감독님이 전



영화 ‘신과 함께’ 스틸컷. /롯데엔터테인먼트

화 하셨을 때 바로 (출연에) 응했어요. 어떤 역할을 주시든 같이 한다는 사실에 기뻐요.”

‘신과 함께’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캐스팅과 상관 없이 원작을 먼저 읽었던 그는 ‘신과 함께’의 영화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대본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역할이었다”던 김동욱은 8년 전 ‘국가대표’에서 호흡을 맞췄던 하정우의 도움도 컸다고 말했다.

‘신과 함께’는 국내 영화에서 볼 수 없던 화려한 CG(컴퓨터그래픽)로도 주목 받고 있다. 7개 지옥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은 물론, 캐릭터들도 CG를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 김동욱 역시 그 중 하나다.

분장 아닌 CG를 통해 원귀로 변신했던 그는 “(원귀 모습이) 실물보다 낫더라”는 평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평소 판타지, SF 장르를 좋아해서

더 즐거웠다. 판타지라는 장르를 온전히 전면에 내세운다는 건 할리우드에서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 이런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 그 시작을 함께 하게 됐다는 게 제겐 굉장한 영광이다”고 말했다.

올 여름 개봉이 확정된 ‘신과 함께’ 2부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이 작품은 1부와 2부를 동시에 제작한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1부의 성적은 곧 2부의 흥행으로 직결된다. 다행히 1부가 소위 ‘대박’을 치면서 배우, 제작진들도 한 시름 놓은 분위기다.

1부가 자홍의 이야기였다면 2부는 수홍의 이야기다. 1부에서 인생작을 새로 쓴 김동욱은 자신이 중심이 된 2부를 통해 또 한 번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부는 더 재밌을 거예요. 1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저승 삼차사 강림, 해원맥, 덕춘의 개인사도 풀어나가고, 성주신, 원 일병, 박 중위 등 이야기도 절묘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염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김민서 기자 min0812 @metroseoul.co.kr



배우 김동욱 /롯데엔터테인먼트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뉴스스탠드

“KBO닷컴 만들어 통합마케팅 기초 다질 것”

정운찬 KBO총재, 업무로드맵 발표
조직정비·경기경쟁력 강화 등 모색

정운찬 신임 KBO총재가 재임 3년간 추진할 업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한 포부를 드러냈다.

정 총재는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프 양재타워에서 열린 KBO 총재 이·취임식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연간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 총재는 KBO 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제도 개선, 클린 베이스볼의 구체적인 실현, 144경기 경쟁력 강화, 외국인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BO리그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게 계획하며, 필요할 경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임 총재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프양재타워에서 열린 KBO 총재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한국은 물론 메이저리그 전문 연구 기관에 외주 용역도 줄 심산이다.

마케팅 수익 활성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 총재는 “내년에는 중계권 가치 평가와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계약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 수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KBO닷컴 개설은 그 일환이다. 정 총재는 “3년 차인 2020년에는 메이저리그 성공의 바탕이 된 MLB닷컴과 같은 KBO닷컴을 만들어 한국프로야구 통합마케팅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사무총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 총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좋은 분을 모시도록 할 예정이며 공모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002년 서울대 총장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후 동반성장위원장도 역임했다.

/김민서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4일

음력 : 11월 18일

수도권 날씨

-7~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 연천 -12/-1
- 동두천 -10/1
- 가평 -12/1
- 파주 -12/-1
- 서울 -7/0
- 양평 -10/1
- 인천 -7/-1
- 수원 -9/-1
- 용인 -9/-1
- 평택 -9/1
- 백령도 -5/-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가 2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0만명에게 배포한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이모티콘을 20만명에게 추가로 배포했다.
- ▲ 안양 KGC인삼공사의 센터 오세근(사진)이 3년 만에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1위에 올랐다. 이정현(KCC), 디온테 버튼(DB), 양동근(현대모비스),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가 뒤를 이었다.
- ▲ 프로축구 겨울 이적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베테랑 골잡이 데얀의 수원 삼성 입단 여부가 4일 결정된다. 데얀이 전체 외국인 선수 고액 연봉 2위에 해당하는 13억4500만원을 받았던 만큼 연봉 협상이 관건이다.
-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을 맡게 될 책임자로 윤정섭 한국종합예술학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 ▲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이세돌 9단, 커제 9단이 오는 13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을 펼친다.
- ▲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31일간 미국 IMG 아카데미에서 재활 캠프를 열고 팔꿈치 수술 후 돌아오는 에이스 김광현을 비롯한 선수 5명을 특별관리한다.
- ▲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강원FC가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던 측면 공격수 정석화를 영입했다. 또 포항 스틸러스는 중앙수비수 하창래를 영입했다.

기업 10곳 중 3곳 “신입사원 안 뽑는다” 구직난 가중

2018년 기업 채용 전망

공채보단 상반기 수시채용 많아
인사담당자 “채용 때 성별 고려”
기업 초임연봉 평균 2464만원



올해 기업들의 신입 채용이 전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 방식은 공채보다 수시채용이 늘어나고,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채용이 집중된다. 제조업이나 생산분야가 채용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신입 초임이 구직자의 희망연봉보다 적었다. 직원 채용시 직무에 따라 성별을 본다는 기업이 81%로 직무별 채용 성별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기업 72% 신입 채용한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65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신입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가 신입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입 채용을 했다는 응답(76%)보다 4%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 해보다 신입 채용이 줄어들 것을 암시했다.

채용방식은 공채보다는 ‘수시채용’(6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채, 수시 모두’(24.1%), ‘공채’(9.3%)의 순서로 답했다. 채용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48.3%) 실시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상반기’(44.5%), ‘하반기’(7.2%)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신입 지원자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50.8%, 복수응답)

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43.2%), ‘고졸’(37.3%), ‘대학원 이상’(5.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신입사원 채용 분야는 ‘제조/생산’(30.8%, 복수응답)이 1위였다. 이어 ‘영업/영업관리’(28.7%), ‘연구개발’(16.7%), ‘서비스’(14.3%), ‘IT/정보통신’(14.3%), ‘인사/총무’(11.4%), ‘마케팅’(9.3%), ‘디자인’(8.9%), ‘기획/전략’(8.2%), ‘구매/자재’(8%) 등이 있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신입 초임 연봉은 구직자의 희망 연봉보다 적었다. 응답 기업들의 신입사원 초임연봉 평균은 246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진행된 신입 구직자 대상 설문에서는 희망 연봉 평균이 2573만원으로 나와 109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신입 초봉 평균은 대기업 3174만원, 중견기업 2892만원, 중소기업 2394만원 순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33% 높았다.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하는 이유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58.9%,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39.9%),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25.1%), ‘새로 진출하는 분야의 인재가 필요해서’(

12.2%),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8.9%), ‘작년 경영 성과가 좋아서’(3.6%) 등을 들었다.

반면 신입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그 이유로 ‘현재 인력으로 충분해서’(46.3%,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인건비가 부담돼서’(27.5%), ‘경력직 채용으로 대체할 계획이라서’(23.8%), ‘업황이 좋지 않아서’(21.3%),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적 부담이 되어서’(8.8%), ‘구조조정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서’(8.8%), ‘비정규직을 뽑을 예정이어서’(5%) 등이 있었다.

◆직원 뽑을때 성별 본다

대부분 기업들이 채용 시 구직자의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412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성별 고려’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81%가 ‘성별을 고려한다’고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성별을 고려해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무가 있어서(78.1%,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 우수한 역량에 차이가 있어서(21.3%), 기업 내 성비 불균형을 막

기 위해서(16.5%),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1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성별에 따라 선호한 직무는 남성의 경우 생산/현장(51.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영업관리(40.4%), 기획/전략(18.3%), IT/시스템 운영(13.5%), 인사/총무(11.4%), 연구/개발(10.2%) 등이 꼽혔다. 여성을 선호하는 직무는 재무/회계(39.2%), 인사/총무(32.0%), 서비스(28.1%), 광고/홍보(24.6%), 마케팅(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의 68.2%가 성별 외에도 채용공고에 밝히지 않은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74.5%)이 가장 많았고, 외국계기업(69.2%), 중소기업(68.4%), 중견기업(65.9%), 공기업/공공기관(65.2%)이 뒤를 이었다.

채용공고에 밝히지 않지만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요건 1위는(복수응답) 나이(52.0%)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거주지(28.1%), 전공(23.1%), 학력(17.8%), 자격증(17.4%), 결혼여부(12.8%), 외모(8.9%), 어학점수(6.0%), 종교(3.2%) 등도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자격요건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초등 ‘어려운 숙제 금지’·중학교 ‘22개교 객관식시험 폐지’

조희연 “교육혁신 모든 학생 누리게 할 것”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2018년 업무계획

‘1수업 2교사제’ 10곳서 시범 도입
서울형 혁신학교 200개교로 확대
‘완전 추첨제’ 도입 여부 3월 발표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선학학습 연관 숙제나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이른바 ‘엄마숙제’가 금지된다. 자율협사립고 완전 추첨제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 수업에서 두 명의 교사가 공동 참여하는 ‘1수업 2교사제’가 1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되고, 중학교 22곳에서는 객관식시험 없이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최종 결정해 3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실시되는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입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고등학교 입학경쟁 완화와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입학전형과 학생 배정 방식이 바뀐다.

초등학교에서는 선학학습을 필요로 하는 숙제가 금지되고,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완전추첨제’ 도입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의 시범 모델이라고 볼 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개방-연합형 종합 캠퍼스 교육과정’도 확대되고, 학생들이 제품을 기획하고 3D프린터 등을 활용해 직접 제작하는 ‘서울형 메이커교육(미래 공방교육)’은 올해 신규 도입된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189개교에서 올해 200개교까지 확대되고,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도 활성화를 통해 혁신학교의 교육방식이 전체 학교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정규 수업 때 담당교사를 돕는 협력교사 수는 82명에서 110명으로 늘고, 10개교 정도의 초등학교에서 한 수업에서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을 하는 ‘1수업 2교사제’가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초등학교 선학학습 필요성이 요구되는 숙제나 부모 도움이 필요한 숙제가 금지되고, 1~2학년의 경우 ‘숙제 없는 학교’ 운영도 추진된다.

중학교 중 22곳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수행평가와 서울형 시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 성장 모니터링 시스템’ 선도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까지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의 정책을 복원하고 확장하는데 주력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의 혁신을 기반으로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단신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선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사진)가 한국국제경제학회 총회에서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대학 경제학 교수들과 공·사립 연구기관, 기업체 및 정부의 경제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정회원으로 약 15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최 교수는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출범과 함께 교수로 임용됐다. 이대 국제통상협력연구소장 및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 당시 ‘FTA 교수연구회’를 창설해 지금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서울대 ‘자연과학 공개강연’ 내달 10일 개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KAOS(카오스)재단이 주최하고 인터파크와 Y TN SCIENCE가 후원하는 서울대 자연과학 공개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 과학동감’이 오는 2월 10일 교내 문화관 대강당(73동)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의 대표적인 과학 나눔 프로그램으로 1994년 1회 강연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22회)부터는 카오스재단의 참여로 공연의 형식을 빌린 새로운 장르의 과학 강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강연은 지난 22회부터 이어진 ‘과학자의 꿈과 도전’을 대주제로 하고 ‘과학동(動)감’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석학 4인의 강연, 학생 동아리의 춤 공연 등이 마련된다.

서울시립대, 교수 등 9명의 ‘진짜 진로 이야기’ 듣는다

서울시립대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6일~18일까지 ‘9인 각색, 사람책과 함께하는 진짜 진로 이야기’를 교내 창공관 대강당의실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신희권 ▲영어영문학과 권영희 ▲조경학과 소현수 ▲도시공학과 정석 ▲건축학과 이충기 ▲철학과 이종환 교수와 서울휴먼라이브러리의 진로·진학 상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책’ ▲행복플라워 김추복 ▲(주)에이치랩 김형민 ▲(사)JUMP 이의현 대표가 참석해 시민들과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서울시립대 교수 6명은 각 전공 소개와 자신만의 공부법을, 기업 대표 3명은 자신이 부딪혀 개척한 진로를 청중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재능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수도권 유일 선정

인천재능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시범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앞서 ‘대학연계형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와 ‘Uni-Tech 통합교육 육성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시범 운영대학 시범대학까지 선정됨에 따라, 명실공히 일학습병행제 선도대학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기우 총장은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시범 사업 선정을 통해 2학년 재학생들이 조기에 취업을 보장받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적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6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결과 공개

동국대·건국대·대진대·아주대·한림대... 2019 전형계획 등 소개

동국대 등 6개 대학들이 공동으로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결과를 공개한다. 2019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등을 위한 교사 대상 설명회도 잇따라 개최한다.

동국대학교(총장 한대식)는 6개 대학이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종 모의 서류평가 연수’를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6차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대학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건국대, 대진대, 아주대, 한림대 등 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2018학년도 학종 모집 결과와 모의서류평가의 실제, 2019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학종 서류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안내 등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오는 16일 서울 광진구를 시작으로 22일(춘천), 23일(수원), 24일(서울중구), 25일(의정부), 29일(경주)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보·증권 M&A 추진 아시아 리딩뱅크로



[유통] 가전 유통의 혁신 온·오프 결합 '옴니스토어' Life 13



토끼가 안내하는 아기자기 지하공간 '쌘지쌘길'

지하철은 문화를 싣고

74 3호선 안국역 - 쌘지쌘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인사동이 '쌘지쌘길' 오픈으로 더욱 활기를 띄게 됐다.

인사동은 도심 속에서 낡지만 귀중한 전통의 물건들이 교류되는 소중한 장소다.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이곳에는 화랑, 전통공예점, 고미술점, 전통 찻집 등이 밀집되어 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출구로 나와 종로경찰서 방향으로 오다보면, 갤러리인지 가게인지 모를 정도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쌘지쌘길에 다다른다.

쌘지쌘길에 위치한 가게들은 저마다 독특한 멋으로 젊은이들은 물론, 중년층에게까지 인기가 많다. 이러한 인사동 쌘지쌘길에 더욱 활기를 띄게 됐다. 쌘지쌘길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쌘지쌘길이 오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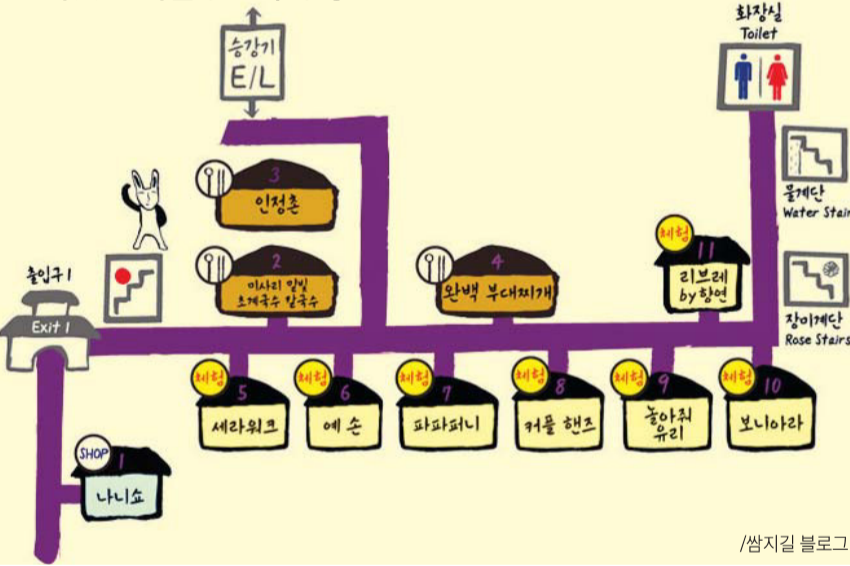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손맛 나는 작품과 문화를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인사동의 대표 장소 쌘지쌘길은 2004년 12월 18일 오픈했다. 1층에서 4층까지 350미터를 길로 연결한 독특한 건축물로 일 평균 1만명, 월 평균 30만명이 방문한다.

인사동 쌘지쌘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매주 토, 일요일마다 차없는 거리로 지정돼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날은 기존 가게와 거리 곳곳에 전통공예와 전시회가 열린다.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기도 한다.

한편, 쌘지쌘길이 차 없는 거리가 되면서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있던 공간이 필요없게 됐다. 이에 해당 공간은 쌘지쌘길 정문에서 바로 지하로 연결하는 '쌘지쌘



쌘지쌘길 체험공간과 공방들



차량용 엘리베이터, 쌘길 통로로 단장 토끼와 밤하늘 스토리로 벽면 꾸며

유리·한지 공예 체험, 먹거리 다양해 가족·연인 문화체험 공간으로 제격

길'로 리뉴얼 탄생했다. '쌘지쌘길'은 쌘지쌘길의 상징 캐릭터 '토끼'와 '로고' '쌘'을 달님과 연결해 밤하늘을 토끼와 밤하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장 쌘지쌘길다운 재미를 제공한다. 단순한 갤러리처럼 그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포토존, 체험존, 먹거리존으로 꾸며 즐길거리를 더했다. 쌘지쌘길에 들어서면 1층 입구에서부터 벽면의 '달'이 초승달, 보름달, 그믐달로 변화하며 볼거리를 제공한다. 변화하는 달의 형상을 지나 내려가는 계단에는 동선에 따른 그림 속 이야기가 펼쳐지

고, 겨울재질의 그래픽으로 방문객들은 달이 겨울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색다른 광경을 느낄 수 있다. 보름달은 벽면이 아닌 천장에 매달아 실제로 하늘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달 안에서 토끼가 밤하늘을 짚고 매달려 노는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한 버드나무 잎사귀, 그림자의 재질을 부분적으로 바꿔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쌘지쌘길을 통해 지하로 내려오면 재 활용품을 활용해 만드는 유리 공방인 '놀이줘유리'와 한지로 다양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한지 체험공방인 '예손'에서 재미있는 경험은 물론

소중한 추억도 만들 수 있다. 또한 '미사리 밀빛초계국수', '완백부대찌개' 등 그동안 쌘지쌘길에서 즐길 수 없었던 먹거리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인사동 쌘지쌘길을 찾는 방문자들은 쌘지쌘길을 통해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하나로 연결된 쌘지쌘길에서 쇼핑은 물론 먹을거리,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됐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그리고 가족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쌘지쌘길 계단에 마련된 계단갤러리에서는 신인 작가·예술가들의 전시회가 열린다. 지난 1일까지는 고양아, 자연, 일상을 모티브로 그림 그리기는 예술가 드로잉캠프의 '묘묘한 하루'가 열려 방문자들에게 힐을 선사한 바 있다. 새로운 전시는 미정이며, 쌘지쌘길 공식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해 변화된 인사동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